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실 천 여 성 학 전 공

김 영 순

2013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실 천 여 성 학 전 공
김 영 순

2013

dCollection @ skhu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7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김 영 순

dCollection @ skhu

김영순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 도 교 수: 허 성 우 (인)

심사위원장: 정 해 구 (인)

심 사 위 원: 허 성 우 (인)

심 사 위 원: 김 미 란 (인)

성공회대학교 N G O 대학원

dCollection @ skhu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강인한 제주여성'이라는 담론이 제주여성의 현실을 얼마나 재현하는가? 그들은 강인한 여성으로서 회자되는 것과 같이 동등한 사회 성원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제주여성들에 대한 언설은 설화나 신화 등을 배경으로 한다. 그와 동시에 암울한 시대적, 지역적인 조건들을 견디며 살아온 역사 속 여성들과 제주해녀는 제주여성의 삶을 상징한다. 이렇듯 제주여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속에서도 제주여성 특유의 강인함으로 역사를 헤쳐왔다는 것이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핵심이다.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전유와 확산은 육지인의 입장에서 타자화된 시선으로 제주지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더불어 제주지역에서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상징을 등장시키거나 이념적 구성물을 제시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확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형성된 '제주여성담론'이 만들어낸 상징적 제주여성상이 실질적으로 제주여성의 현실과 연관성이 없음을 밝히고, 제주사회에 주류담론으로 유포되고 있는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을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시도한 글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가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주여성들이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담론을 활성화시켜 제주여성을 재구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불어 제주여성들이 지배 '담론 재현'의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사회를 움직여가는 정치·사회적 주체로서 확고한 위치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 타자화된 시선,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
제주해녀, 속담, 설화, 역사 속 제주여성, 제주여성의 현실

dCollection @ skhu

목 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7
3. 연구방법 14
4. 논문구성 18

Ⅱ. 제주지역 사회·문화적 특징과 여성의 현실

1. 제주지역 사회·문화적 특징 20
2. 제주여성의 현실 25
   1) 경제활동 25
   2) 정치참여 28

Ⅲ. '강인한 제주여성담론'구성 요소들

1.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구성 요소들 37
   1) 속담으로 보는 제주여성 37
   2) 아이업개 설화에 나타난 제주여성 41
2. '제주해녀담론' 43
3. '제주여성천년사'에 나타난 '제주여성담론' 47
   1) 군력으로 동원된 여정(女丁) 47
   2) 유배된 사대부와 제주여성 홍윤애 48
4. 소결 50

dCollection @ skhu

Ⅳ.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여성주의적 비판

1. ‘제주여성담론’의 가부장성 51

1) 속담과 설화속의 제주여성, 무엇이 문제인가? 52

2) 전유되는 담론: 제주여성천년사 54

(1) 유배온 사대부와 제주여성 홍윤애 58

(2) 화살받이로 동원된 여정(女丁) 58

(3) 미화된 정절이데올로기: 열녀 60

2.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오리엔탈리즘 63

1) 외부의 시선: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63

2) 해체되어야 하는 해녀신화 65

(1) 이데올로기화된 ‘제주해녀담론’ 65

(2) 이주노동에서 배제된 ‘제주해녀’의 바깥물질 67

(3) ‘제주해녀담론’의 허구성 69

Ⅴ. 결론 73

참고문헌 77

Abstract 83

dCollection @ skhu

표 목 차

〈 표 1 〉 참여관찰 토론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16

〈 표 2 〉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17

〈 표 3 〉 경제활동 참가율 26

〈 표 4 〉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28

〈 표 5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30

〈 표 6 〉 기초 단위 대표자의 성별 분포 31

〈 표 7 〉 제주사회의 분야별 성평등 정도 34

〈 표 8 〉 연도별 해녀 현황 45

〈 표 9 〉 제주도 여성관련 연구자료 55

dCollection @ skhu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주지역은 지리·역사·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이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육지와 분리된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제주섬을 창조했다는 설문대할망[1]이나 자청비[2], 가문장아기[3] 등 여신들에 대한 신화가 현재까지 하위문화인 '굿'을 통해 이어져오고 있는 곳이다. 거기에다 '탐라제주의 근로여신', '잠수들의 눈물겨운 근로정신', '자기가 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사는 여인들'이라는 수사를 동반한 제주해녀가 실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주지역의 이질적인 요건은 6·70년대를 지나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방행정의 주도로, 지역주민의 정체성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징을 등장시키거나 이념적 구성물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포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 제주해녀에 대한 미화된 서사가 제주여성 재현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중앙의 여성학자들에

---

1) 설문대할망은 제주를 창조한 위대한 여신(女神)이다. 제주를 창조할 때 치맛자락에서 흘러내린 흙이 360여 개의 오름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500명이나 되는 자손들을 먹여 살리려 죽음을 무릅쓰고 가마솥에 죽을 끓이는 것이나 육지까지 다리를 놓게 해주려는 그녀의 희구에서 볼 수 있듯 설문대는 창조의 여신이며 모든 것들을 향한 박애의 여신이다 (2011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전시관 홍보자료)

2) 자청비는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글공부를 위해 부모를 설득하고 남장을 하여 문도령의 세계(남성성, 남성적 경험과 성역할)로 들어간다. 남장을 한 자청비는 여성이라는 옷에 의해 제한 당했었던 남성적인 영역들에 도전하고 남성인 문도령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 냄으로써, 가부장적인 차별에 첫 번째로 기여하는 성과 성역할 구분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청비는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도, 여성집단의 면에서도,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도에서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갔던 여신이었다.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고 그것들이 놓쳐버리기 쉬운 '지혜'의 여신이다. (2011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전시관 홍보자료)

3) 전상신 가문장아기는 제주신화의 이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운명의 여신이다. 가난한 집의 여식에다 가장 나이 어린 막내인 가문장아기는 동네 사람들이 나무바가지에 밥을 해다 키워준 '나무바가지 아기', '가난'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결핍된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가문장아기는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가난'과 '여성'이라는 굴레, 천부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력과 독립의 성취를 위해 매진한다. (2011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전시관 홍보자료)

dCollection @ skhu

의해 이루어지면서 '적극적', '진취적', '자기희생', '동양의 아마조네스' 등 제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주류 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제주도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해온 '제주여성천년사' 편찬 작업은 제주여성을 제주를 대표하는 기표로 등장시켰다. 김은실(1994:19)은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현실적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은 지식인들의 학문적 점유물이 될 수 없다는 대명제가 전제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여성들은 자신의 현실적 경험이 지배담론과 모순을 일으킨다고 느끼더라도 현실을 다르게 읽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읽으려면 다른 담론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제주여성 권력에 대한 과장된 수사는 문제적인데 왜냐하면, 제주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신화와 역사속의 담론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이고 현실 생활에서는 또 다른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여성을 드러내는 각종 통계에서도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에 비추어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고, 필자도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을 뒷받침해 줄 적절한 통계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제주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가정 내에서의 성차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보면, 상호 모순되는 '비부계적 계승원리'와 '부계적 계승원리'가 상응하고 있는 가족 제도이다. 제주의 역사는 외부 권력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역사와 함께 외부 권력에 아부하는 역사의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지배 엘리트들의 육지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적 경향이 강한 곳이다. 이러한 배경위에서 제 '제주여성담론'이 구성되었다.

4) 통계청의 2011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에서 제주여성들은 4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남성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40% 가까운 수치로 성차별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dCollection @ skhu

제주여성을 상징하는 기표로 활용된 제주해녀는 제주도내 15세 이상 여성인구에서 1960년대 이전까지는 30%에 육박했다고 하지만, 2010년 현재는 2.3%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주여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실은 해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강인한 제주여성'이라는 담론이 제주여성의 현실을 얼마나 재현하는가? 그들은 강인한 여성으로서 회자되는 것과 같이 동등한 사회 성원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담론이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고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제주여성들 스스로 느껴왔던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제주에서 50여년을 살아온 여성으로서,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여성운동의 현장에 있었던 참여자로서, 또한 여성학 연구자로서, 제주여성의 현실과 다르게 전유되고 확산되는 '강인한 제주여성담론'[5]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박종성(2006)에 의하면 푸코가 말하는 담론이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특정한 지식과 규율을 강요함으로써 '진리'의 장을 구성하는 체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계층이 비위생적이고 게으르며, 식민지인이 열등하다는 언술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자의적·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하나의 담론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 담론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지배세력은 지역주민의 정체성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징을 등장시키거나 이념적 구성물을 제시하기도 한다(조성윤, 1998). 이처럼 담론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어쩌면 '제주여성담론'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모순을 드러냄과 동시에 제주를 바라보는 외지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을 확인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제주도민들에게 내재된 혼종성과

5) 이후부터 이 논문에서는 제주여성을 표현하는 '강인한', '생활력이 강한', '똑똑한', '부지런한'이라는 수사를 통칭하여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이라고 하겠다.

dCollection @ skhu

식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여성'에 대한 수사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국가적으로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국가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통합적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국민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전통적인 여성전통문화정책, 새마을운동 등 위로부터 국가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교담론의 확산(장미경, 2007; 박진학, 1969)을 시도하였다. 제주도에서 1977년 12월에 발간한 「제주도지 72」호에는 "새생활운동의 정립을 위한 제주도 전통문화의 재정립"이라는 기획 기사를 특집으로 기획한 것으로 봐서 70년대에는 민족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노력들이 국가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성대(1996)는 그러한 시도를 그의 저서 '제주인의 혜민정신'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에서 1979년에 제주인의 정체성 정립과 생활이데올로기를 찾기 위하여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협력하여 '탐라정신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보았다.

이후 제주여성에 대한 수사는 조혜정이 「제주도연구 1권」에서 제주도 문화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고 제주해녀를 연구한 논문『한국의 남성과 여성』(1988)을 발표한 이후, 제주해녀는 '강인한 제주여성'을 대표하는 표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6]. 조혜정은 이른바 명문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로서 주류적 위치에 있다. 그런 그의 위치성은 제주해녀가 '강인한 여성담론'의 토대가 되는데 확고한 역할을 한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학자 권귀숙은(1998) "해녀 연구에서의 우선적인 과제는 새로운 여성성의 신화를 창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여성성의 신화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권귀숙이

6) 김영돈은 「제주도연구 제3권」(1986)에서 "제주해녀의 민속학적 연구"에서 민속학적 관점에서 제주해녀를 접근하고 어촌사회에 있어서 해녀의 비중과 위상을 정리하였을 뿐, 이 시기까지만 하여도 제주해녀가 제주여성을 대표한다는 '수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혜정이 1988년 제주해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후부터는 제주도내에서 해녀를 연구해온 학자들까지도 조혜정의 연구를 인용하게 되었다.

dCollection @ skhu

비판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주류 담론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발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그것은 조혜정과 권귀숙이 말한 바, 위치의 차이, '중앙'에 의존하는 지역의 식민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제주여성들을 '강인하고 부지런한' 여성으로 그려내는 통념의 기저에는 제주를 창조했다는 '설문대할망'이나 '자청비', '가문장아기'등의 신화적 서사가 인용된다. 이수자(2004)는 여신들의 삶속에 고단한 여성들의 삶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제주여성들은 현실의 삶속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 신화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실제 제주사회가 여성비하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뜻이었다면서 제주여성들이 남성중심 사회에서 받은 핍박과 억압을 견뎌내는 대리만족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제주신화 속에서 제주여성의 원형을 찾고자 했던 김정숙(2000)은, 신화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의 집단의식이나 무의식, 문화와 생활을 아는 데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의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휴이트(1998:155-156, 차옥승 2007 재인용)는 여성적 신성성이라는 개념들은 그 창조물을 여성에게 도로 덧씌우기 위해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들이 더 잘 참아내게 함으로써 그런 억압의 조건들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화적 서사와 더불어 제주사회의 여성과 관련된 속담과 설화는 외면적으로는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근면성을 찬양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여성노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써(김미진, 2008)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통문화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호명된 제주여성 신화와 제주해녀, 역사 속에서 재현된 제주여성들은, 지역의 학자들에 의해 '제주여성천년

dCollection @ skhu

사 체계적 정립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제주여성담론은 전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분위기는 제주사회의 주류담론으로 자리 잡았고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정광중,2007:145) 치환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여성들에 대한 언설은 설화나 신화 등을 배경으로 하면서 시작된다. 그와 동시에 암울한 시대적, 지역적인 조건들을 견디며 살아온 역사 속 여성들과, 제주해녀는 제주여성에 대한 상징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표로써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자는 '제주여성담론'과 제주여성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체감하면서, "역사와 전통의 재현을 통한 공동체 이미지 만들기 시도는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을 동질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로부터 배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모순된 것(문승숙, 2005)"이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첫째,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견뎌야만 했으나 지역사회로부터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부각된 제주해녀를 조명하려 한다. 둘째,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제주여성에 대한 담론은 오리엔탈리즘이 작동된 것으로써 이는 제주여성의 삶의 형식에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는 권력으로 작용하게 됨을 드러낼 것이다. 셋째, 신화나 역사 속에 있는 제주여성을 찾아내어 이데올로기화함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들을 통해 집단의식을 창출하는 토대(김은실, 1994)를 만들어 결국 제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지위'만'을 갖도록 만들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더불어서 제주사회를 지배해 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흐름들을 지배했음을 밝히고, 미미하게나마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형성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한 학자와 여성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했던 작은 흔적들을 찾아내려 한다.

제주여성을 대표하면서 상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dCollection @ skhu

역사적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기록되고, 공유하면서 치유되는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정립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들의 수행했던 억센 노동과 고통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사는 제주여성에 대한 왜곡만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제주여성들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공간으로 독특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제주도라는 특수한 여건들로 말미암아 일부 학자들에 의해 변형된 오리엔탈리즘이 여성을 대상화시키고, 가부장제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제주여성을 타자화시키는 것은 제주여성들에게 시혜적으로 주체성을 부여하면서 중층억압의 한 가운데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잡초처럼 강인해야만 했던 제주여성들이 왜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는 역사적 시각을 갖는 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당연한 인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제주여성담론'이 여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을 하면서 견뎌내야 하고, 강인해야하고 근면해야한다(김미진, 2008)는 담론의 구성과 유포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신식민주의가 만들어낸 타자화된 여성담론임을 주장하려 한다. 따라서 '제주여성담론'이 만들어 낸 상징성은 또 다른 여성억압의 형태이며, 제주여성을 호명하는 기존의 '제주여성담론'은 제주여성들의 현실과 유리된 수사임을 밝히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인도 근대사 전공자이자 작가인 이옥순(2002)은 무분별한 인도 신화 만들기에 일침을 가하면서 왜 인도는 항상 '삶의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곳' 인가? 라고 묻는다. 이옥순의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제주가 인식되는 방식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에 제주도가 '이국적인' 곳으로써 제주로의

dCollection @ skhu

이주가 유행처럼 많아지고, 올레로 대표되는 '힐링'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지친 이들의 휴식처 같은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렇듯 다른 지방인들이 제주에 대한 동경은 오리엔탈리즘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려시대 이후 중앙의 수탈과 억압의 역사가 이어져온 곳이다. 고려 말기에 일어난 삼별초 항쟁이 고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삼별초군이나 몽고인들은 모두 '침입자' 들이었을 뿐이다. 또한 근대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4·3사건[7] 역시 중앙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박정희의 개발독재시기에 제주도는 관광개발 정책에 힘입어 관광지로, 한국과는 다른 이국적인 낭만이 있는 곳처럼 포장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1991년 '양용찬'[8]의 죽음은 타자화된 제주인으로서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양용찬이 죽기 전 남긴 유서를 보면 "나는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 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특별법 저지, 2차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면서 제주사람들을 타자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옥순은 우리는 무심코 영국 식민주의가 만들고 구성한 인도의 범주화와 이미지를 모방하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인도 관련지식을 재생산하여 서구의 승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복제, 또는 동양화는 우리

7) 본 연구에서는 4·3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4·3사건에서의 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미한 탓도 있지만 4·3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언급으로 지나가기에는 이 사건이 제주여성들에게 가져다 준 영향력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제주여성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4·3이 가져다 준 트라우마를 극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연관된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8) 양용찬(1966~1991)은 남제주군 출생으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재직 중 학생운동으로 제적되었다. 그 후 타일공이자 농민으로서 서귀포지역 개발문제,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운동을 하던 중에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양용찬열사추모위원회홈페이지http;/biog.daum.net/yyc2008), 2011년 11월 22일

dCollection @ skhu

의 근대화에 수반하여 소개된 문학, 교과서, 학술도서, 미디어, 영화 등이 가져온 문화적 효과를 통해 전파되었으며 이렇게 당연시되고 박제된 인도의 이미지와 지식을 적극 활용하면서 고착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옥순(2002:35-36)은 "우리가 보는 인도는 이중의 오리엔탈리즘, 곧 서양이 구성한 동양이 아닌 동양이 구성한 동양이라는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와 남, 자(自)와 타자(他者),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구성하는 상징이나 이미지는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시대적·사회적 기후와 풍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작가는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보자고 글을 끝맺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의식 속에 내면화된 강력한 의식체계, 일상적 파시즘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시민사회를 규율화하는 이념적 도구인 파시즘은 반공이나 전체주의 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나와 다르게 보고, 그것을 그대로 틀 안에 가둬버리는 것, 그 시선이야말로 파시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옥순은 '신비한 인도'라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부정하고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철한 시각으로 인도의 '신비하지 않은' 요소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 '과거'의 인도를 다시 서술하고, '현재'의 인도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고정된 인식과 분석의 범주를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인도를 보려는 노력, 비록 이러한 움직임은 서양을 변방으로 내몰지는 못한다 해도 '서양이라는 보편성'에 구멍을 내는 수단은 될 것이다."라고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인도는 서양이 구성한 동양이 아닌 동양이 구성한 동양이라는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은 다른 나라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렌즈로 비판하고 있다.

프란츠 파농은(1998)『검은피부 하얀가면』에서 흑인들의 콤플렉스는 "경

dCollection @ skhu

제적인 절차의 소산이고 열등감의 내재화 혹은 열등감의 육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뿌리 깊은 식민지의 역사와 백인과 프랑스에 대한 콤플렉스가 어떤 식으로 흑인들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신분석학을 이용,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파농은 '백인되기를 열망하는 흑인'이 피식민지인들의 동화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이것이 정신적 소외임을 드러낸다. 흑인이 백인되기를 열망하는 것은 백인이 기준이고,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입받기 때문이다. 식민지를 경험한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파농은 식민지 흑인의 심리상태를 논하였지만 그의 글은 남/녀, 장애/비장애, 중심부/주변부 등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통찰을 담고 있다.

1970년대의 종속이론에서는[9] 내부식민지를 제4의 식민지 또는 식민지속의 식민지라고 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식민지는 국가 간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에서도 형성된다고 한다. 한 국가 안에서 어떤 지역, 특히 수도권은 그 국가가 생산한 재화를 식민지 본국이나 외국으로 송출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독점과 번영,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다른 지역을 식민화시킨다. 그에 따르면 발전확산 모델은 산업화과정을 통해 분리되어있던 중심과 주변의 관계가 점차 동질화될 것이라 가정하며, 주변부에서 게토화되는 인종적 소수들을 교육하고 사회화시키려는 '동화주의'적 접근이 국가형성의 모델에 내재해 있고, 이것이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단초가 된다. 반면에 그의 '내부 식민지 모델'은 근대화의 고르지 못한 흐름에 따라 중심부(선도 그룹)가 이점을 안정하고 독식하는 반면, 주변부 경제(후진 그룹)는 중심부에 의지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착취당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때 내부 식민지의 형성과 역할이 외부의 해외 식민지와 유사해지며, 중심과 주변부에서는 언어,

9) Ozkirimli, Umut. 2000.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St. Martin's Press(97-100)

dCollection @ skhu

종교, 문화적 차이 등을 통해 차별이 양산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적 연대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개인들이 이 경제적 불평등을 집단적 억압이자 불공정으로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연대하고 소통할 때, 주변부의 후진그룹들은 선도그룹과의 동등함 또는 우월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분리를 주장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민족주의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환원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제주여성담론'은 푸코의 담론이론의 틀로써 설명이 가능해진다. 박종성(2006)에 따르면 푸코가 고안해 낸 담론(discourse)은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인데, 문제는 그렇게 드러나는 세상의 모습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언술은 허용되지만 어떤 언술은 허용되지 않으면서 분류, 배분, 순서를 정해서 만들어진 언술체계는 개개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순응시키는데 동원된다(같은글:7)." 이런 점에서 그 시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동일한 형태'로 방향지우는 보편적인 표상체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권력은 종주국으로 치환될 수 있고, 권력담론은 식민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푸코의 권력담론은 탈식민주의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은 여성의 노동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제주여성은 노동을 통한 경제력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평가가 다르다. 조혜정(1986)은 조선시대 가족연구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공적세계로의 진출을 위하여 꿈을 키우며 노동을 천시하고 경제적 활동에는 관심이 적은 선비를 이상형으로 삼아왔던 만큼 그를 보완하기 위한 여성의 일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서 노동하는 계층은 천시되었고 노비가 없는 양반들과 양민층에서는 여성이 노동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모방해

dCollection @ skhu

온 조선조 사회가 중국의 전족과 같은 관습을 수입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시대에는 생계 담당자로서 여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이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명분위주의 남성적 삶을 보완해 온 실질적 행위자였음을 고려할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욱 독립적이고 성취적 기질을 살려왔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조의 경제구조에서 (이효재, 1996) 여성들이 생산한 면포가 조세와 군역 및 유통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여성 생산은 조선조 경제에 핵심적 부분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대부분 가정 내 사적인 기여로서만 간주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조옥라, 1986). 실제로 여성의 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은 전체 가족원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부계가족의 사회 내 지위유지에 필수적이었으며 결국 여성노동은 가부장제의 존속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조옥라, 같은 글).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여성들이 조선시대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도구화된 여성의 모습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주여성들을 어떻게 호명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 잡지, 신문기사, 실록을 참고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1984년 창간된 잡지 「제주문화연구」에서는 제주도문화에 대한 연구는 가끔 눈에 띄지만 '제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브리테니커 한국지사에서 발행한 『뿌리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제주도편(1992)에서도 20개의 주제 중에서 제주여성과 해녀에 대한 기록은 제주도의 물산과 경제활동 수산업 편에서 '수산업의 체면을 세우는 해녀'가 등장할 뿐이다. 제주여성에 대한 기록은 '적게 태어나서 많이 남은 제주여자들'은 육지 여자들 보다 더 활동력 있고 또 그만큼 한가하지 못했음

dCollection @ skhu

을 의미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여다의 섬'에서 제주도 여자는 구성 비율이 5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부지런할 뿐 아니라 바위처럼 무던하고 꿋꿋하며"라는 수식어가 전부이다. 바위처럼 무던하고 꿋꿋하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여성들이라는 표현이다. 또한 1997년에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실록』[10]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50여년의 제주사회를 나타낸 글에서 제주여성을 호명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학교의 설립과 출가 해녀 및 해녀에 관한 기사, 4·3사건에서 여성 대원들의 자수 및 검거 등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더욱 더 본격적으로 탐라미인대회, 철쭉여왕(70.5.16) 미스제주선발(75.5.5외), 감귤아가씨, 관광아가씨 선발을 중요한 기사로 수록함으로써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각종 '아가씨 선발 대회'로 제주여성을 호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한어머니상', 효부·효녀상을 모범적인 여성상으로 자주 등장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사회화된 여성의 모습보다는 지역의 지배계층이 원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도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배제와 경제적 영역에서 여성 활동이 장려되고 용인되었다는 것은 여성의 노동력 착취를 위한 가부장제의 지배원리의 작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배제함으로써 착취하는 거대 매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고무되는 지역문화주의나 지역화된 프로그램은 불평등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도와줄 수도 있다(태혜숙, 2001). 그러한 문화 속에서 생계담당자로서 여성의 고된 노동은 역사 속에 분명하게 실재해 왔으나 그런 여성의 역할은 제주사회의 주체로서가 아닌 남성 중심의 사회를 보존해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은 제주여성을

10) 제주실록은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제주도내 신문기사를 수록해 놓은 자료로써 제주도가 1997년 발행하였다. 이 자료 속에 나타난 제주여성을 읽는다는 것은 50여년의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는 제주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무엇을 중요한 여성의 내용으로 가져가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dCollection @ skhu

신화와 동일시하고, 제주해녀의 노동을 상징화시키고 있음을 보았다. 결국 제주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재현되는 '강인한 제주여성'은 가부장제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호명되는 것이고 제주여성들에게 또 다른 억압의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논문은 '제주여성담론'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방법론을 동시에 병행하였다. 제주여성담론은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체와 관계없이 인구에 회자되는 제주여성에 대한 호명인 까닭에 관련된 문헌의 행간을 읽어내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발간하는 기관지 「제주도지」와 각 종 간행물, 제주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제주도 연구」, 87년 이전의 신문기사를 검토했다.

우선 1차 자료로써 제주여민회에서 발간한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 개인의 일상 경험을 중심으로」(2007)와 『제주실록』(1945~1996), 『2011제주여성가족 통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제주여성천년사' 정립을 위한 자료들을 보았다. 문헌연구는 제주해녀를 비롯한 제주도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논문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역사 가운데 제주여성과 관련 있는 사료를 묶은 『제주여성사료집 I』을 중심으로 제주여성담론의 형성과정을 찾아보았다.

두 번째 연구방법은 참여관찰이다. 연구자는 여성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제주YWCA프로그램 간사활동을 시작으로 제주여민회 창립 이후 회원, 위원장, 이사, 대표 등을 역임해왔으며 또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25년 이상

dCollection @ skhu

제주지역의 '리' 단위의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밀착된 형태의 직장생활을[11] 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제주지역여성운동의 현장에 있었던 여성운동가로서의 경험과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 제주시 지역여성들과의 생활은 제주여성담론이 현실과 무관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제주지역 출신인 점은 심층면접자들과의 공감을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참여관찰은 제주의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이상 3명, 해안 마을에 거주하는 4 ·50대 농·어촌 주민 5명과 함께 경로당과 부녀회 등에서 두 차례의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해녀가 제주여성을 대표하는지, 왜 해녀가 되지 않았는지, 혹은 되려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세 번째, 심층면접으로 여성단체/운동 경험이 있는 12명의 활동가와 해녀 경험이 있는 1인, 현재 해녀로 일 하고 있는 1인을 인터뷰 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모두 제주지역 출신들로서, 면접자들의 연령대는 30대가 1명, 40대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대 이상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를 여성단체 활동을 했었거나 여성운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한 것은 제주여성담론에 대하여 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자의 필요성 때문이다.

심층면접은 2012년 8월20일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하였는데, 면접 내용을 녹음한 뒤에 녹취를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시간은 5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다. 개인 면접에서는 먼저 제주여성담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제주여성 담론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강인하다고 보는가, 왜 강/약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주여성들이 타 지역 여성들과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

11) 연구자는 198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제주시내 외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의사가 없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1차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이기도 하다. 시골 마을의 특성 상 연구자는 시골의 65세 이상 '여성들' 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도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dCollection @ skhu

다. 특히 17세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해녀로서의 경험이 있는 70대 면접자와 현재에도 해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해녀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 〉 참여관찰 토론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 분	이 름	나 이	직 업
1차	참여1	84	농업
	참여2	75	농업
	참여3	88	농업
	참여4	78	농업
2차	참여5	46	어촌계장
	참여6	49	어업
	참여7	46	건설업
	참여8	50	농업

dCollection @ skhu

〈 표 2 〉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이 름	나 이	직 업	비 고
사례1	51	농민	여성농민회
사례2	59	사업가	여성단체협의회
사례3	38	여성단체활동가	YWCA
사례4	50	염색전문가	제주여민회
사례5	44	도서관운영자	제주여민회
사례6	42	여성단체활동가	이주여성인권센터
사례7	71	주부	전직해녀
사례8	49	프리랜서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례9	52	정치인	제주여민회
사례10	53	교사	전교조
사례11	59	농민	농가주부모임
사례12	60	해녀	새마을부녀회

dCollection @ skhu

4. 논문의 구성

본 문은 서론을 제외한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세장으로 구성되는데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여성의 현실,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구성 요소들,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에 대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제주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특징과 문헌에 나타난 제주지역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이 여다(女多)의 섬과 여신들이 많은 섬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육지와는 다른 비부계적 요소 등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주여성의 현실을 통하여 제주여성들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것이 제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설명하고 지역의 가부장성은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토대가 됨을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제주여성의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을 통하여 드러난 제주여성의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여성담론'은 제주여성들의 현실과 무관한 이데올로기적 작동임을 보여줄 것이다.

3장에서는 '제주여성담론'을 형성하는데 도구로써 활용된 담론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여성관련 속담과 설화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전유되고 있는지, 제주해녀의 억센 노동과 힘든 물질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노동'은 어떤 형태로 묘사되고 이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제주여성천년사' 작업의 결과물인 여성관련 자료들이, 군력으로 동원된 여정(女丁), 미화된 정절이데올로기인 열녀, 유배온 사대부와 제주여성 홍윤애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 줄것이다.

4장은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비판으로서, 제주여성을 강인한 여성으로 담론화하는 권력의 실체 뒤에는 지역의 견고한 가부장성이

dCollection @ skhu

감춰져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이 제주여성의 삶을 담론화시켰으며 그 담론이 전유되는 과정의 중심에 '제주여성천년사' 작업이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제주여성이 수행했던 노동의 한 분야에 있는 제주해녀를 과장되게 재현함으로써, 노동은 사라지고 신화만 남아 결과적으로 제주여성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제주해녀 신화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써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연구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가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정리한다.

dCollection @ skhu

Ⅱ. 제주지역 사회·문화적 특징과 여성의 현실

1. 제주지역 사회·문화적 특징

이 장에서는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제주사람들은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를 육지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섬이 갖는 지리적 고립성과 지역적인 한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도서성, 척박한 농토, 주변성(신행철, 1995)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제주도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원후 3세기에서 11세기에 이르는 세월 동안 제주 섬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12]. 『조선지지략』[13]에 의하면 제주도는 본래 탐라국(耽羅國)이었는데 고려 숙종 10년인 1105년에 탁라군(乇羅郡)으로 부속되었다. 이후 13세기 후반부터 삼별초의 제주진입에 이어서 100여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왜구의 침입 또한 빈번하게 있어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주변부로서 죄인들의 유배지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도와 관련된 문헌들이 있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하다.

제주지역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섬인 탓에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물이 잘 고이지 않아 마실 물이 귀하였다. 해안선을 따라 지하수가 솟아나거나 중산간 지대에 물이 고인 늪이나 못이 드물게 있을 뿐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지형은 여성의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밭농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노동투입율이 높게 나타난다. 밭농사에 있어 주요 노동은 김매기인데 이

12) 탐라연구자료집4, 2003, 제주여성연구동향 재인용

13) 『조선지지략』은 고종25년(1888)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만든 우리나라 지리지이다. 당시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용 및 병참용으로 작성한 보고서 중 하나이다(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2010, 제주발전연구원).

dCollection @ skhu

작업은 지구력과 섬세함을 갖춘 여성에게 적합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사면이 바다인 지리적인 여건을 문무병(1989)은 “남자들이 바다에서 많이 죽는 지역적인 여건이 여성들이 일을 해야 했고 그런 모습이 외지인의 눈에 보이면서 여자가 많은 섬으로 보였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14]는 577,187명으로 여성이 288,270(49.9%), 남성이 288,917명(50.1%)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섬에서는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데 예로부터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15]. 이러한 구분은 혼인관계, 4·3사건, 해녀의 분포, 정치적인 관계 등에 이르기 까지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은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시기에는 ‘천한’ 사람들이었고 중산간 마을은 ‘양반마을’로 두 마을끼리는 혼인하는 것도 꺼렸다.

> “내가 결혼 할 나이가 되니까 저기 해안 마을인 ○○에서 중매를 서려고 남자가 찾아 왔는데, 아무도 상대해 주질 않았어. 상것들이라고. 그 땐 산간 마을끼리만 결혼도 했지...”(참여2)

그러다가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도로가 생기고 경제의 중심이 해안마을 쪽으로 이동하면서 역설적으로 해안마을 사람들은, 중산간 사람들을 ‘웃드르 것들’이라고 천시하였다. 특히 4·3사건이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발발하면서 해안사람들은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적대시하고 천시하였다(유철인, 1998:320-322).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각종 선거 때에는

14)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2011, 제주특별자치도

15)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김석준은 해발200~600m를, 현용준은 해발100~200m 고지 사이의 구릉평야를, 산간마을은 해발300m이상 산촌형 마을로 구분하였다. 신행철은 해발1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마을을 산간마을, 바다를 인접한 마을과 산간마을의 중간 지대를 중산간 마을이라고 하였다. (제주도지 제5권, 2006, 제주특별자치도:104-105)

dCollection @ skhu

인구가 많은 해안부락 출신 사람들이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창기(1992)는 제주도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과 환경을 연구한 글에서 제주도 가족제도에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원리가 공존한다고 하였다. 한편에는 부가의 가계계승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족 원리와는 배치되는 '비부계적계승원리'가 강하게 자리 잡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계적계승원리와 동일한, 어떤 면에서는 더욱 강화된 모습도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부계적 요소로는 장남분가, 균분상속, 부계혈연집단의 결속약화, 부녀자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혼·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이 약하고, 남녀의 접촉이 비교적 자유롭고, 장례나 혼인에 외가 친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있다. 이창기는 이를 열악한 환경조건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제주인의 생존전략이자 적응의 메커니즘이라고 하였다. 부계적 요소로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고, 조상숭배와 조상제사를 중시하며 아들을 얻기 위한 축첩과 조상제사를 장남이 전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초월의식의 발로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삼인(2011)은 제주도의 친족제도는 한국사회의 특징인 부계적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전혀 다른 원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상적 차원에서는 평등의 원리가 구현되지만 혼인의례 등 의례의 차원으로 전환되면 바로 남성중심적이며 부계 중심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제주지역은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주도의 각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가 '포제'와 '굿' 두 가지 형태로 행해져 온다. '포제'는 유교식 제의로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데 반해 '굿'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진다. 이처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행

dCollection @ skhu

해지는 '굿'에서는 여신들이 등장한다. 제주 '굿'에서는 일반본풀이[16]나 당본풀이로 무당을 통해 구전되었다. 이 때 여신들은(이수자, 2004: 277-292)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으로, 교육적 기자제로서, 제주인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묘사되기도 한다. 제주여성은 문화영웅(김순이, 2001: 341)으로 등장하기도 하면서 제주여성들의 원형으로 재현되고 "제주여신들의 신화는 곧 제주 여성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신화에서 보여주는 여신들이 용감하고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과 고난을 극복하는 놀라운 의지는 현실의 제주여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이상을 찾으면서 고된 현실을 이겨내고 싶은 대리만족(이수자, 같은 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삼다(三多)의 섬'[17]으로 불려진다. 여자가 많다는 '섬' 제주에서 여성들은 '강인함'과 '부지런함'이라는 특성으로 대표되어 회자된다. 그런 언설의 배경에는 남성들의 일본 노동시장 진출, 4·3사건에서의 민간인 학살, 바다에서의 조난, 한국전쟁에 징용 등 환경적·역사적 요인들(송성대, 1996; 권귀숙, 1998; 이창기, 2011)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남성인구의 과도한 도외 이출을 심화시켜 남녀성비의 불균형[18]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남은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제주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이미지는 척박한 토질과 기후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남성이 떠난 자리를 여성의 몸으로 대신하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강화된, 피할 수 없는 생존노동 이기도 했다. 그 '강인한' 제주여성들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까지 노동이주를 감행해야했

16) 무속의례인 굿에서 구송되는 신화들은 대개 일반본풀이, 당본풀이, 조상본풀이 등으로 나눈다. .일반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신들에 관한 신화로 천지창조와 관련된 신들, 혹은 인간 삶의 제반양상을 맡아 관장하는 신들에 관한 신화들이다. 당본풀이는 각 마을마다 있는 당(堂)이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당신(堂神)의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조상본풀이는 각 집안이나 집단의 수호신의 내력을 설명한다. (이수자, 2004, 제주여성전승문화, 제주도)

17) 제주는 예전부터 삼다(三多), 삼무(三無)의 섬으로 불렸다. 삼다(三多)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것이고, 삼무(三無)는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의미다.

18) 제주지역의 남녀성비는 1935년에는 86.3이고 해방 이후인 1949년에는 82.1에 불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이창기, 2011,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인구추이'에서 재인용)

dCollection @ skhu

던 '해녀들'이었고, 사라진 남편들을 대신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 질 수밖에 없었던 제주 '미망인'들이었다. 제주여성의 노동과 관련하여 송성대(1997)는 제주해녀의 억척스러움과 강인함을 설명하는 글에서 바다에서 물질을 하지 않고 가사만을 돌보는 한반도의 여성들이 안락한 삶을 살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의 여성들은 제주여성들이 하는 물질만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오히려 사회적인 면에서는 제주의 여성들보다 더 질곡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399)"고 하였다[19]. 한국여성들의 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은 부계가족의 지위유지에 필수적이었고 여성들의 노동은 명분위주의 남성보다 더 독립적이고 성취적인 기질을 가졌을 것(이효재, 1996; 조옥라, 1986)이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주체적 행위라기보다 남성중심사회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제주여성들이 여신과 관련된 자부심이나 자신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와 관련하여 차옥승(2007)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 이면에 감추어진 아픔들"은 고달픈 것이었다면서 결국 "모든 것은 살아야 하는 것, 살아내야 하는 것, 살아가야 하는 것의 문제"라고 보았다.

제주지역의 신화에 여신들이 많다는 것과, 여성들이 밭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 장남분가, 비부계적계승원리, 이혼· 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이 약한 것 등의 특성들과 이국적인 제주지역의 풍광은 일부 학자들에게는 동양의 아마조네스를 연상하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육지와는 다른, 섬 특유의 가부장제가 문화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제주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19) 송성대는 이인화(1994)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비숍의 1897년에 쓴 "한국의 농촌 여성들은 의복관리, 식사, 도정, 물 운반, 베짜기 등의 수많은 가사일 외에 밭일도 하였으며 며느리에게 고된 일의 일부를 물려줄 때까지 단지 막일꾼에 지나지 않았다..." 글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dCollection @ skhu

2. 제주여성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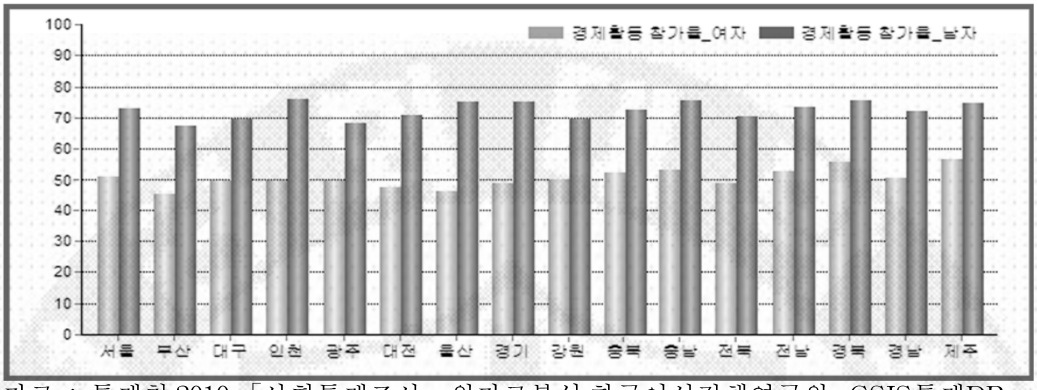
1) 경제 활동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지역은 더 이상 여다(女多)의 섬이 아니다[20]. 그러나 여전히 제주지역은 '여자가 많은 곳', '여자가 드센 곳'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제주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전국의 평균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이 더 활발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자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적극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허정옥, 2002). 〈표 3〉을 통해 보면 2010년 현재 제주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생산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연관성을 놓고 본다면 제주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이 여성의 경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 제주지역의 성비는 1949년 82.1의 성비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55년 88.7, 1975년 93.9, 1985년 96.2, 1995년 97.2, 2000년 98.5, 2005년 99.6, 2008년99.8, 2009년 100, 2010년 100으로 조사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의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와 허정옥의 2002 '제주도의 인구 및 성비변화 추이' 참고)

dCollection @ skhu

〈 표 3 〉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통계청,2010,「사회통계조사」원자료분석.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통계DB

2011년 제주여성가족통계[21]를 통해 유추해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의 총 근로자 수는 5,527명이고 그 중 여성은 1,263명으로 22.9%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은 사업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곳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적용해 보면 제주여성의 노동은 소규모 자영업이거나 주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또한 제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3차산업보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허정옥, 같은글).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통계상의 수치는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는 주부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 타지에서 시집온 여성들이나 젊은 여성들에게 또 다른 억압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주도에 살면 전업주부인 며느리한테 '우리 며느리 마냥 논다'고 하잖

21) 2011년 제주여성가족통계자료에는 산업별 노동인구에서의 성별 구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각 종 통계에서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있지 않아 다른 통계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0년 현재 제주지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3,791명으로 그 중 여성은 775명, 남성은 3,016명이고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수는 여성이 488명, 남성이 1,248명으로 되어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dCollection @ skhu

아요. 육지에서 온 여성들이 가장 어려운 게 자기가 집에서 전업주부 역할을 하면 동네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노는 아줌마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참 허탈하지요."(사례9)

"강인하다는 것은 나에게 이데올로기로 작용돼서 나를 괴롭혀요. 난, 강인하지 않고, 나약하고, 힘들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래요. 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여성들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엄청 호소한다는 거지요. 전업주부로 산다는 게 엄청 괴롭다는거지. 육지는 안 그런데... 내 주변의 여자들은 다 강하지 않아. 다 힘들다고 애기해"(사례8)

한편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를 살펴 본 통계〈표 4〉에서는 제주도 남자의 경우 여성은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과 같게 나타나고 있고 가정 일에 상관없이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견해는 전국 평균(50.9%)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 50.3%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여성의 경우는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8.0%)보다 조금 높은 8.5%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정 일에 상관없이 취업해야 한다는 견해도(59.4%) 전국평균(55.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통계는 여성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dCollection @ skhu

〈 표 4 〉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단위 : %

2009년	여 자						
	가정에만 전념	결혼 전까지	첫자녀 출산전 까지	자녀 성장후	결혼전 자녀성 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잘모르 겠다
전국	8.0	4.0	5.9	10.8	23.5	55.9	5.4
제주도	8.5	3.4	3.5	9.1	24.6	59.4	5.7
2009년	남 자						
	가정에만 전념	결혼 전까지	첫자녀출 산전까지	자녀 성장후	결혼전자 녀성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잘 모르겠다
전국	10.7	5.8	8.0	12.3	23.0	50.9	8.5
제주도	10.7	3.0	8.6	13.1	24.9	50.3	6.6

주 : 모든 수치는 반올림의 원인으로 세목과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결혼전까지', '첫자녀 출산전까지', '자녀성장 후', '결혼전 자녀성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항목은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세부항목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원자료분석.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경제활동과 취업에 관한 의식과 관련하여 여성이 취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22]으로는 '여성의 가사부담'으로 인한 장애 요인이 전국평균 46.6%보다 높은 50.1%로 나타났고 '사회적 편견과 관행'이라는 응답은 35.4%로 전국 평균 39.9%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주 지역이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낮으나 가사부담율이 높아 제주여성들이 경제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적 노동의 상황(2011, 제주여성가족통계:49)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치참여

2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원자료 분석,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Collection @ sk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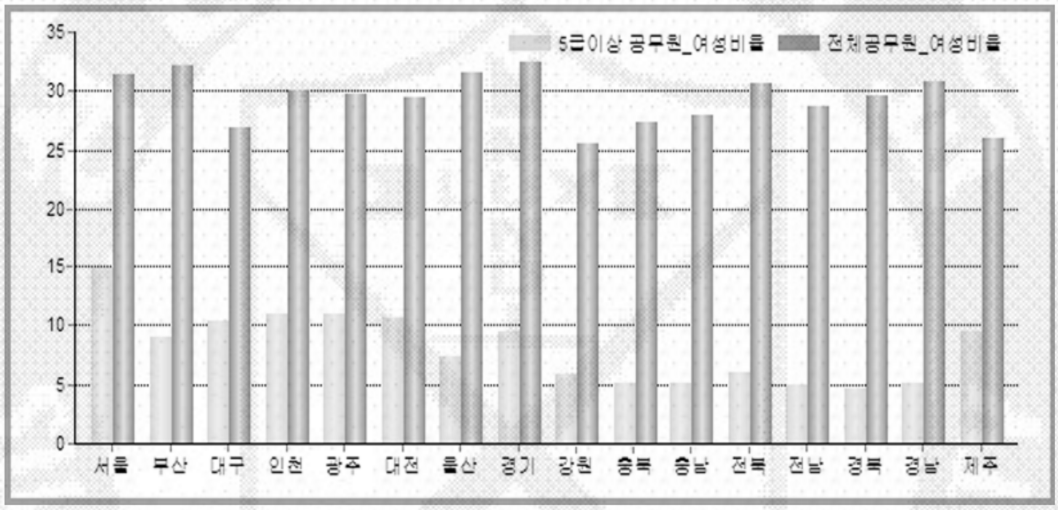
제주지역은 1991년 지방자치 이후 단 한명의 여성도 직접 선거에 의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할 만큼 정치영역에 있어서 제주지역은 여성들에게 배타적이다. 지역의 정치영역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정책에 여성의 이익을 반영하는 역할을 기대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와 영향력 발휘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여성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여성단체들이 보수/진보와 상관없이 함께 협력해 온 분야이기도 하다. 중앙의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국회의원의 경우 1996년 선거에서 22명이 입후보하여 2명이 당선되었지만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32명이 지역에서 출마하여 14명이 당선되는 등 여성의 정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상황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공적영역 중에서도 특히 정치 분야에서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제주여성들이 '이재수의 난', '4·3사건' 등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받은 트라우마가 굴절되어 앞장서 나서려하지 않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해왔던 사례2는 "제주여성들이 '여성'을 밀어주지 않는다", "짓밟으려 한다"고 제주 여성들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례 11역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 "우리 제주도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는 진짜 취약해. 나설려고 안 해. 왜냐면 제대로 나서서 일할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 여성들이 밀어주고 받들어 줘야 되는데 항상 짓밟으려하고 크지 못하게 누르려고만 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서지 않는 거지요. 우리 제주도 여성들은. 남자들은 술 한 잔 먹고 풀고 그런 뭐가 있어도 과감하게 나서고 하지만 우리 회원들은 그런 쪽에는 아직도 부족해. 생활력이 강하고 그런 거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생활 이런 것만 강한 거 아닌가?..."(사례 11)

dCollection @ skhu

다시 표현하면, “근면하고, 강인하고, 똑똑한 여성들에게 왜 제주사람들은 투표하지 않는가?” 이다. 결국 정치적인 통계는 지역사회가 제주여성을 호명하는 것과 지역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반증한다 하겠다.

〈 표 5 〉 전체 및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여성과 공직」.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직급 및 직렬별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2005년에는 5급 여성공무원이 13명으로 4.5%, 3급 이상은 3명으로 4.7%를 보여주고 있으나, 2010년 현재에는 5급이 20명으로 8.9%, 4급이 2명으로 2.6%로 큰 변화가 없지만 3급 여성공무원이 3명으로 18.8%의 비율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방선거 시기마다 여성의 참여 확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제주지역의 행정구조에서 가장 기초적인 주민들의 의사결정단위인 동지역과 읍

dCollection @ skhu

면지역, 그리고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의 어촌계의 대표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6 〉 기초단위 대표자의 성별분포[23)]

단위: 명, ( )안은 %

구 분	전 체	남	여
리장	172 (100)	166 (96.5)	6 (3.5)
통장	487 (100)	345 (70.8)	142 (29.2)
어촌계장	100 (100)	83 (83)	17 (17)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읍·면·동 지역의 대표자는 총 659명[24)]인데 이 중 여성은 22.5%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여성 리장은 3.5%로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의 해녀들이 속해있는 해안 마을에는 100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원 수는 남성은 2,702명이고 여성은 9,482명이다. 이 중 여성이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곳은 17곳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의 소외는 결국 정치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제주사회의 가부장 문화가 정치적인 분야에서 더욱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3) 기초단위 대표자의 성별 분포는 통계로 나온 곳이 없다. 연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별 분포를 표로 구성하였다. 읍·면·동 지역의 경우 구성원들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지만 어촌계의 경우 일정금액의 가입비를 내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 제주도내 100개의 어촌계는 총 12,184명의 어촌계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중 남성은 2,702명이고 여성은 9,482명이다. 결국 22.2%에 지나지 않는 남성들이 전체 대표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4) 동사무소에 소속된 '통'은 487곳이고 읍·면사무소에 속한 '리'는 172곳이 있다. 리장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은 동민들로 구성된 '통장선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dCollection @ skhu

"농촌에 시집와 보니까...이건 부녀회원들이 분노해야 될 문제이지요. 마을 리장을 뽑을 때, 투표권이 다 가구당 한명입디다. 리민이면 당연히 투표권 있어야지, 한 가정에 투표권이 하나이면 누가 그 권리를 행사 하겠느냐는 거지요. 여자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 투표도 못해요. 내가 부녀회장 할 때 아무리 이걸 바꾸려고 해도 남자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마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우리 마을은 아직도 가구당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어요."(사례1)

"저는 농촌에 들어온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마을에 부녀회에 가면 맨날 마을 행사에 밥하고 치우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마을 축제나 어버이날 행사, 체육대회.... 그래서 이제는 가기가 싫어요. 무슨 마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부녀회장은 커피 타러 가고..... 그래도 부녀회장이 참석은 한 거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지..."(사례4)

제주여민회[25]가 2007년에 개인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사한 "생생수첩 -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는 남성중심 사회의 실체를 바로 보면서 지역사회 안에 내재된 가부장성과 계급의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제주여성의 현실 또한 전혀 성평등한 모습이 아님을 밝혀내는데 매우 유의미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여성은 '강인하고 억척스럽다'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78.1%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나, 본인은 57.1%가 강인하지 않다고 답하여 제주여성담론에 대한 이미지와 개인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면접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저는 별로 강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사람들은 강하다고 생각해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있는 일인데, 그것과 다른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권한이나 집안에서의 위치나 이런 거는 상대

25) 제주여민회는 87년 11월 민주항쟁 이후 "여성의 인간화와 사회의 민주화 및 평화적 민족통일을 실현하고 제주지역의 제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활동해 오고 있는 제주지역의 진보여성운동단체이다.

dCollection @ skhu

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게으르고 생활력이 약하고 돈을 잘 못 버는 여성들이 이중적 질곡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사례9)

사례9는 스스로를 강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였는데 그는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인 권한에서 평가절하 해 버리는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례6의 경우에는 스스로 강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주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라고 강조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제주여성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정말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어떤 강함을 착취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사례6)

제주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제주여성들에게 고난과 억압을 내면화시키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착한여성'으로 길들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착하고', '강인한' 제주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삶을 살았는지도, 지역사회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그런 제주여성들이 살아야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억척스럽게 '소'처럼 일하면서 타자들의 시선을 견뎌내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는 사례1은 지역의 여성농민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남성들과 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한 후에 농민회 회의에 나가서 남성들과 똑같이 참여하는 일이 계속되었는데 남성들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제주여성이 강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제주여자들은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dCollection @ skhu

"나는 농민회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관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회의에 와서 발언하는 것도 싫어하고, 탁아소 운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우린 당연하게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고민 속에서 아, 여성농민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 풀어야하는 거구나 해서 여성농민회를 제주지역에서 최초로 만들게 되었지요."(사례1)

조사에 따르면 제주사회가 어느 정도 성평등 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3%가 성평등 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강인하고 억척스러워 다른 지역보다 성평등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2007, 생생수첩:23) 실질적으로는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성평등 하지 않은 지역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7〉은 제주사회의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 표 7 〉 제주사회의 분야별 성평등 정도

각 분야별	가정		사회참여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문화·예술활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그렇다	31	15.7	15	7.7	19	9.8	65	34.0	8	42
별로 그렇지 않다	98	49.7	119	61.0	102	52.6	105	55.0	62	32.3
대체로 그렇다	66	33.5	59	30.3	66	34.0	21	11.0	108	56.3
매우 그렇다	2	1.0	2	1.0	7	3.6	0	0	14	7.3
합 계	197	100.0	195	100.0	194	100.0	191	100.0	192	100.0

자료 : 제주여민회, 2007 「생생마당 -그 강인한 이미지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

제주사회의 분야별 불평등 정도를 보면 문화·예술분야(36.5%), 경제활동영역(62.4%), 가정영역(65.4%), 사회참여활동영역(68.7%), 정치활동영역(89%)

dCollection @ skhu

의 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답변 문항에서 '정치활동 분야'의 성평등 정도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한 사람도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와 사회참여 활동 분야에서도 '매우 평등하다'고 답한 참여자가 1.0%에 지나지 않고 있음은, 경제활동분야3.6%, 문화·예술 활동 7.3%에 비해서 제주여성들이 지역의 정치영역에서 배제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Collection @ skhu

Ⅲ. ‘강인한 제주여성담론’ 구성 요소들

제주여성을 단일한 주체로 구성해내는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은 지역사회 내부에 이질적인 집단들을 단일화시키는 지배담론으로 작동하면서 내부의 다성성(多聲性)에 대한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김은실, 1994). 현실 속의 제주여성들을 ‘문화영웅’인 여신들과 ‘강인한 제주해녀’와 동일하게 인식하는(김순이, 2001; 이수자, 2004; 차배옥덕, 2004; 좌혜경, 2012; 문순덕, 2009) 작업은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 안에서 작동되는 내부식민주의[26]가 들어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여성을 단일하게 ‘강인한 제주여성’이라고 호명하는 것은 억압적인 지배담론이다. 담론이란 지시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대상을 생산해 내는 작동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MacDonell, 1986:72, 김은실1994 재인용).

제주여성의 삶을 구전되는 속담이나 설화 등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공적영역에서 배제된 여성들이었고,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되고, 고단한 노동을 견뎌야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초인적인 의지로 바다 속 20미터까지 내려가고,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며 출산 후 3일이면 물질을 하는 제주해녀들이었다. 고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제주도로 귀양 오는 선비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고 가사노동과 군력으로 동원되기까지 했던 제주여성들은 일부 학자들로부터 ‘제주여성천년사’ 작업을 통해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으로 재현된다.

---

26) 내부 식민지는 한 국가 내에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식민화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식민지와 다르기 때문에 내부 식민지론에서의 식민지는 식민화의 형태를 드러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 영국계 후손이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계 후손을 차별하고 식민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제주도가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역시 내부식민지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종속이론에서는 내부식민지론을 제4의 식민지 또는 식민지속의 식민지라고 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식민지는 국가 간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에서도 형성된다고 한다. 한 국가 안에서 어떤 지역, 특히 수도권은 그 국가가 생산한 재화를 식민지 본국이나 외국으로 송출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독점과 번영,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다른 지역을 식민화시킨다 http://blog.naver.com/mlm00?Redirect=Log&logNo=90077287365

dCollection @ skhu

1.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구성 요소들

1) 속담으로 보는 제주여성

이 장에서는 먼저 제주속담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을 통하여 험난한 삶을 살았던 과거 제주여성들의 생활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속담이 주는 의미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속담을 통해 드러나는 제주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해체하고자 한다. 김미진(2008)은 제주도 여성속담의 이중성을 분석한 글에서 제주도 여성속담에는 여성의 삶이 반영되어 있으며, 속담의 일반적인 여성비하적인 성격과 동시에 여성의 근면함과 강인함이 드러나는 것이 제주도 속담만의 특색이라고 하였다. 본 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제주도에서 구전되어오는 속담들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속담에서 재현된 여성은 유교제례문화에서 배제된 자들이다.

"샛절 드는 날 여자가 놈의 집에 춪아가지 마라"
(입춘에 여자가 남의 집에 찾아가면 안 된다)
"제 벌인 방에 여자가 들어가민 나쁘다"
(제사를 모시는 방에 여자가 들어가면 나쁘다)

제주도에서는 부모의 생일보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다. 이와 관련되어 현재까지도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남의 제사 집에 들어갈 때 남자는 현관으로 여자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풍속이 남아 있다. 아직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포제에는 제관으로 선정된 남성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생리중인 여성들은 '비린다'하여 접근을

dCollection @ skhu

허락하지 않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도 있다. 송성대(1997:438-439)는 한반도의 유교와는 다른 제주도만의 유교 풍습으로 '성인 남성만의 종교'인 유교 제례에 여성을 참여토록 한다면서 예로부터 수탉도 암탉도 동시에 울었던 제주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 여성들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성이 사회적 위상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언설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문중의 주요 행사에서 남성들이 밥을 다 먹고 후식까지 제공된 후에야 식사를 할 수 있고, 마을 등의 각 종 행사에서 '밥'을 제공하는 부녀회원들의 동원은 필수적인 것이다. 시골에 정착해서 10년이 되는 사례 9는 마을 행사에 참여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과 마을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을 수 가 있느냐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순애는 제주도지(2006:828)에서 제주여성들이 활동성이 높은 만큼 사회적 위상이나 성평등 의식이 높지 않은 이유로 제주사회의 남성 우위의 전통사회적 성격을 들고 있다.

둘째, 여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 희화화시키는 속담들이다.

"여자는 익은 음식이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익은 음식처럼 원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말)
"비바린 늙어가민 고레착지엉 산더레 올른다"
(처녀는 늙어가면 멧돌 들고서 산으로 간다)
"시집 못간 비바린 살렛다리 심엉 홍근다"
(시집 못간 처녀는 찬장다리 잡아서 흔든다)
"상뒤 가온 비발년광 드릇 가온 장은 버린다"
(상가집 갔다 온 처녀와 들판에 내 놓았던 장은 버린다)

여자를 '익은 음식'에 비유하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

dCollection @ skhu

도 한다. 또한 사람이 많이 있는 '상가집'에 다녀온 여자는 들판에서 먹다 남은 '장'에 비유하면서 '버린다'는 표현으로 순결한 여성을 선호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는 제주도 속담이 가부장적 전통사회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희화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속담들과는 달리 제주 속담에서 '여아선호 사상'이 드러나는 속담들도 있다.

"첫 똘은 살림 밑천이다"
(첫 딸은 살림 밑천이다)
"똘 한집이 부재"
(딸 많은 집이 부자)
"똘 섯이문 부재난다"
(딸 셋이면 부자난다)
"나 집 가운은 놈이 집 처녀에 멘다"
(내 집의 운은 남의 집 처녀한테 달렸다)
"똘을 나민 도새기 잡안 잔치허곡 아덜은 나민 발질로 조름팍 찬다"
(딸을 나면 돼지 잡아서 잔치하고 아들을 나면 발로 엉덩이를 찬다)

그러나 이러한 속담들이 여성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딸을 낳으면 좋아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고 제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주에서 딸을 낳으면 잔치를 하는 것은 집안의 '일꾼'이 그만큼 필요했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을 통해 만난 서○○할머니(68세)는 집안의 모든 가사 일이 자기 몫이어서 그 일을 나누어 질 '딸'(여동생)이 필요했지만 어머니가 아들만 다섯을 낳는 것을 보고 '아들' 동생이 태어날 때 마다 "아들 말고 딸로 낳지"하면서 울었다고 한

dCollection @ skhu

다. 이와 같이 '일하는 딸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좋아하고, 그 딸들은 가족에 대한 무한한 헌신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속담과 무관하게 지속된다. 따라서 이러한 속담들은 오히려 여성을 도구화시키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강한 제주여성을 상징하는 속담들은 사실상 극심한 노동의 부담을 진 그들의 삶을 드러내 준다.

"좀녀 애긴 일뤠만에 밥 맥인다"
(해녀 아기는 낳은 지 7일 만에 밥 먹인다)
"좀년 애기 나뒁 사흘이면 물에 든다"
(해녀는 아기를 낳아서 사흘이면 바다에 물질하러 간다)

아기를 낳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태어난 지 칠일이 되는 아기한테 '밥'을 먹일 수밖에 없는 '해녀 엄마'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출산한 지 사흘 만에 물질하러 '가야 했던' 산모인 해녀는 '강인한 여성'으로 포장된다. 여성이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휴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해녀 일을 하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며느리를 보고 "난, 칠일 만에 바다에 들었다"하는 상황은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상황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해녀가 아닌 제주여성들은 해녀를 기피하고 싶은 직업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참여자1은 1931년생이면서 해안인근 마을에서 중산간 부락으로 시집와서 지금껏 살고 있다. 그는 물질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었다.

"친정이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18·19살 때쯤이었는데

dCollection @ skhu

물질하겠다고 바다에 들었다가 어머니한테 아주 크게 야단맞았어. 천한일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다시는 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 그래서 바다동네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았지. 물질하라 그럴까봐서 해녀일은 무섭기도 하고 힘이 드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부럽지가 않았거든." (참여관찰 토론참여자 1)

2) 아이업개[27] 설화에 나타난 제주여성

'아이업개' 설화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설화이다. 제주도는 고려숙종 10년인 1105년에 국호가 폐지되고 고려의 부속 탐라군이 설치되면서 부속도서로 편입되게 되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일본 지역등과 교류를 가졌으며 이들 지역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로서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였다(김일우, 2009:236). 또한 제주도가 지닌 지리적 위치와 관련되어 외부세력의 침입도 잦아 격변을 겪어왔다. 삼별초는 고려정부가 몽고에 굴복해 강화를 맺는데 반기를 든 저항군으로서 진도를 거쳐 원종11년(1270)에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때부터 제주도는 여몽연합군이 항파두리성을 함락시킨 1273년까지 2년 7개월 동안 삼별초군이 실질적으로 제주사회를 지배하였다(김일우, 2009:237). 특히 삼별초의 난 진압 이후 100여년에 걸친 몽고의 지배는 제주여성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삼별초군이 제주에서 최후의 거점으로 쌓은 '항파두리성'의 축조에는 많은 제주도민이 동원되어 노역을 겪었다고 한다. 구전되는 이야기 중에는 토성을 쌓을 때 제주지방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역군들이 배가고파 옆 사람이 싸놓은 똥조차도 먹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기도 한다. 이야기 속에는 여·몽연합군이 삼별초의 마지막 거점인 항파두리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

27) '아이업개'는 어린아이를 업어주며 돌보아주는 어린 여자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dCollection @ skhu

을 때 '아이업개'가 성문을 여는 방법을 말해주어 삼별초군을 정벌할 수 있었다 한다.

"....김방경 장군이 성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술 수가 없었다. 당시에 철문을 했던 모양인데 "철문을 녹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아이업개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했더니 철문을 녹일 수 있었다. 아이업개의 말을 듣고 토성을 함락시켰다...." (문순덕, 2002; 김일우, 2009 재인용).

".... 아이업개의 도움으로 김통정장군을 죽인 김방경장군은 그 공을 갚으려고 아이업개를 찾아갔다. 아이업개는 임신해 있었고, 그 아이가 김통정장군의 아이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업개를 죽이고 배를 갈라 보니 비늘이 달리고 날개가 돋은 아이가 한참 파닥파닥 뛰었다...."(현용준, 1976; 김일우, 2009 재인용).

삼별초의 진입과 함락에 이은 100여 년 간의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된 제주사회에서 '아이업개'로 대표되는 제주여성은 여몽연합군을 도와 토성 함락에 도움을 주었으나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 설화는 삼별초군과 제주여성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김일우는 김방경이 항파두리성을 함락하고 삼별초의 군사 1,3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삼별초군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고 보고있다[28]. 수천 명의 군인들에 의한 2년 7개월 동안의 제주 지배는 제주여성들에 대한 성적 수탈을 동반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제주여성들은 삼별초군의 패망을 바랐으며 결국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정복하는데 '제주여성'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방식으로 해석되고(김일우, 2009:241-244) 있다.

28) 『고려사』 권104, 열전, 김방경전, 김일우, 2009재인용

dCollection @ skhu

2. ‘제주해녀담론’

제주 지역사회는 2000년대 들어 ‘제주해녀’를 과도하게 미화하고 이를 통해 제주여성을 호명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제주여신들과 함께 제주해녀는 ‘강인한 제주여성’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전유된다. 그 상징 속에는 제주해녀들이 추운 겨울에도 소중이를 입고 물에 들어가는 모습이나, 해녀들의 공동체의식, 높은 경제 소득, 해녀항쟁[29]등이 주로 포함된다.

먼저 제주해녀에 대한 조선시대의 문헌들과 학자들의 해녀연구를 통하여 제주해녀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제주지역의 바다에서 주민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은 문헌기록을 보면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는 여자들만이 물질을 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좌혜경, 200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7년 발간한 『제주여성사료집Ⅰ』에는 과거 문헌에서 제주여성의 삶과 당대의 사회상을 고찰할 수 있는 문헌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실록』에는 “...기건은 제주안무사로 근무할 때 백성들이 전복을 바치려고 험한 물질을 하는 것을 보고 근무하는 3년 동안 전혀 먹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사람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문헌이다. 선조 34년 제주 섬에 파견된 김상헌은『남사록』에서 “....제주풍속이 처첩을 많이 거느리기는 하나 포작[30]은 홀아비로 늙어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적고 있다.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를 지낸 이형상은 『남환박물』

29) 1931년의 구좌읍 해녀항쟁은 그 해 6월부터 1932년 1월 말까지 성산.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8개월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된 대중투쟁이었다. 연인원 1만7000여명이 참여한 이 투쟁은 모두 238차례의 시위가 벌어진, 제주 항일운동사상 최대 규모의 항쟁이다. 해녀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이 투쟁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 기관인 관제 조합과 식민지수탈정책에 대항하며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해나갔다. 구좌 해녀항쟁은 제주지역 식민지 시대에 여성이자 어민이 주도한 최대 ‘민중운동’이며, 조선 최대의 ‘어민쟁의’였다는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해녀들이 주체가 됨으로써 제주지역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 (후지나가 타게시, 『1932년 제주도 해녀투쟁』, 『4·3장정』,1989, 제주4·3연구소)

30) 바다에서 잠수 활동을 통해 미역, 전복, 소라 등을 채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dCollection @ skhu

에서 “여자의 부역이 매우 무겁고, 진상하는 미역과 전복은 모두 ‘좀녀’들에게 떠맡긴다.”고 적었다(김오순, 2009 재인용). 또한 이형상은 『탐라순력도』에서 제주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제주 해녀가 견뎌내야 하는 빈곤한 노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한 집안에서 부부가 바치는 것이 옷감만 30여필이나 됩니다. 그런데다 전복을 따는 일이며 각종 오징어잡이와 미역을 따 말려 진상하는 모든 일이 잠녀들 몫입니다. ....특별히 변통하지 않으면 변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제주도 주민들이 조선시대에 겪었던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31] 조선시대에 제주로 유배 왔던 선비가 잠녀에 대해 남긴 시를 통해 잠녀의 일상이 얼마나 고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한림화, 2005)

“잠녀의 옷은 한자 남짓 한데
알몸으로 창파에 죽도록 물질을 하여
두루 일은 고되게 하나 고기잡이 어려워
늘상 관아에서 채찍매를 맞는구나“

해녀들은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신분적으로 천시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제주도가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면서 해녀는 현금 수익을 가져오는 집단으로 등장했다. 근대화 시기의 제주사회는 해녀를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잠수업자’로 보고 있었다(후지나가 타게시: 1990, 재인용). 일반적으로 남성 잠수부와 다르게 여성이 물속에서 작업하는 해녀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제주도에만 존재하는데 학자들은 해녀의 발상지를 제주도로 보고 있다(양영자, 2004). 제주해녀들은 1938년에는 1,500여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바깥물질[32]’을 하기도 했으며 국

31) 제주여성천년사 정립 사업팀의 자료에 의하면 조선조의 제주여성에 대한 기록 및 생활사는 『영주지』, 『제주풍토록』, 『남사록』, 『제주풍토기』, 『탐라지』, 『세종실록』, 『탐라기년』 및 제주도에 유배왔던 이들의 저술을 통해 서술되었다고 한다.

32)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에 의한 침탈로 인하여 생존을 위협받게 된 제주해녀들이 일본, 칭다오, 러시

dCollection @ skhu

내 각지에 출타한 해녀도 2,500여명이 되었다. 제주해녀들은 겨울에 15~20일까지 물질이 가능한데 비해 일본의 해녀는 7일 정도의 조업이 가능하고 제주해녀들은 체질이 강하여 잠수시간도 1분 50초로 일본해녀의 1분 30초보다 20초나 길다. 제주신문 기사에 따르면.[33] 제주해녀들의 수중 적응 현상은 유전적 자질이라기보다는 고도의 훈련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 표 8 〉 연도별 해녀 현황

단위: 명, ( )는 %

구 분	1970년	198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5세 이상 여성인구	112,470	151,223	199,323	202,991	211,588	218,664
전체해녀인구 ( )는15세이상 여성인구대비	14,143 (12.6)	7,804 (5.2)	5,886 (3.0)	5,789 (2.9)	5,545 (2.6)	4,995 (2.3)
30세미만 ( )는해녀인구대비	4,426 (31.3)	764 (9.8)	35 (0.6)	3 (0.1)		
30~49세 ( )는해녀인구대비	7,764 (54.9)	4,737 (60.7)	1,964 (33.4)	1,282 (22.1)	781 (12.9)	125 (2.5)
50세이상 ( )는해녀인구대비	1,953 (13.8)	2,303 (29.8)	3,887 (66)	4,504 (77.8)	4,827 (87.1)	4,870 (97.5)

주: 2011년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통계가족통계 중 p89, p95 ,p314와 안미정(1997)의 글에서 재구성하였다.

한편 제주도의 1913년 해녀인구는 8,391명으로 15세 이상 여자인구의 22%

아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출가'하여 이동하면서 물질을 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33) 제주신문 1975년 6월 11일

dCollection @ skhu

를 차지하였으나(윤유녕, 1997; 안미정, 2008 재인용) 〈표 8〉 에서 살펴보듯이 제주해녀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1962년 26,248명, 같은 자료)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9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감소하고 연령 또한 노령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해녀의 수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났고 어획량의 감소와 더불어 제주여성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녀사회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더불어 해녀의 수가 줄어들고 작업도구의 변화, 고무로 된 해녀복의 등장과 함께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도 변화하고 해방 직후까지 이루어졌던 해녀들의 바깥물질도 대부분 끊기게 되는 변화를 겪는다.

제주도의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물질을 해야 했던 제주해녀들의 노동은 이방인들의 눈에는 신기하고 경이롭게 보였을 것이다.

> “제주는 감정의 섬이다. 제주에는 보람이라는 감정이 있다. 그것은 고통과 긍지가 섞인 것이다. 이런 감정이 해녀에게 있다. 해녀는 실제로는 고기잡이의 플로레타리아이다. 하늘과 바다의 상황이 어떻건 매일 바다에 뛰어들어 조개를 잡는다. 오늘날 제주 해녀의 대부분은 나이든 여성이다.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보람, 즉 희생의 정신이다. 그들의 딸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다 그들 덕분이다“
> (르 클레지오,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2011, 제주특별자치도 간행물)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제주를 소개하는 자료집 “이방인의 눈에 비친 제주”에서 발췌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 출신 배우 겸 감독인 ‘안나 주글라’는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숨비소리[34]’에 대한 깊은 감동과 함께 해녀물질을 경건한 노동”이라면서 그 경건함으로 인하여 아직은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표현하였다 한다[35].

---

34) 해녀들이 바다속에서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채취한 후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쉬는 큰 숨소리를 말한다.

35) 제주의소리(www.jejusori.net) 2011년10월 5일에 제주도해양수산국 해양개발담당의 기고문에서 발췌

dCollection @ skhu

또한 2011년 당시 주한미대사였던 캐슬린 스티븐슨은 해녀학교에서 직접 물질을 체험하였고 제주해녀의 강인한 삶과 해녀문화의 독특함에 대한 관심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36] 했었다.

강준만은(2008:157) 자신을 팔기 위하여 남들의 주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주목경제'로 진입했다면서 '내부식민지'의 가장 처참한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쟁취하기 위한 지방의 '주목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적, 미디어적인 요소들이 철저히 서울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강준만이 표현하는 '주목투쟁'의 발버둥은 내세울 것 없는 변방의 제주사회가 제주해녀를 타자화시키면서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을 형성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3. '제주여성천년사'에 나타난 '제주여성담론'

1) 군력으로 동원된 여정(女丁)

'여정'은 조선시대 제주 해안을 지키던 여자군인을 말한다. 1601년(선조34)에 제주에 파견되어온 김상헌(1570~1652)은 『남사록』[37]에서 "...본 주의 성안에 남정은 오백이고 여정은 8백이 있다. ....대개 남정은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기 위해 건강하고 씩씩한 부녀자를 뽑아 화살받이 터에 보내 세웠다. 이들을 여정이라 칭하는데 삼읍이 한가지이다."라고 쓰고

36) 제민일보, 2011년 6월 24일자 보도

37) 『남사록』은 김상헌이 편저한 책으로 제주에서의 6개월간의 노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제주의 풍토, 물산, 민정, 풍속, 고적, 공헌, 주요건물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제주도의 사회상을 엿보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제주여성사료집 I , 2007:235-23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dCollection @ skhu

있다.

한림화(2009:327-344)는 '여정'의 존재가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확신되었던 국방의 임무를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똑같이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이며, 제주여성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공적인 사회조직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덧붙여 그는 "제주여성의 여정 정신은 단지 군역을 치르는 선에서 머물지 않았다"면서 조정에 진상하는 전복을 잡는 해녀들도, 성을 축조하는데 제물로 쓰인 어린 여성도[38], 여몽연합군을 도와주었지만 죽임을 당하는 '애기업개'도, 1901년 '이재수의 난[39]'의 장두도, 4·3사건 때의 여성들도 모두 여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 '성리학에 입각하여 나라의 경영을 굳건히 다지던 조선조 중엽 초기에 중앙의 고위관리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김상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은 "제주여성은 오래전부터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였음을 더듬어 볼 귀한 사료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유배된 사대부와 제주여성 홍윤애

제주도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인 요건으로 고려시대 이후 유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한치문,

---

38) 세종21년(1439)에 축성된 수산진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쌓아도 자꾸 무너져 내리는 성을 쌓기 위하여 한 중이 예언한대로 어린 여성을 재물로 묻고 성을 쌓으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제주여성사 I, 2009:341-34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연구원)

39) 이 민란 때 제주성의 성문은 봉쇄되었다. 그러자 임산부와 어린이, 그날 그날을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굶주리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 쓰러져 갔다. 이를 보다 못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여성이 장두가 되어 성문을 열었다. 장두란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대표하여 앞장서지만 그 요구가 해결되면 자신은 목숨을 내 놓아야만 했다. 민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당하는 자가 장두였다. 제주여성에게는 장두의 정신이 있다...." 이재수의 난은 봉세관이 무리한 과징과 외래 종교의 횡포에 대한 민중에 저항으로 1901년 5월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민란으로 4,500여명의 천주교인들이 제주도민에 의해 희생당했고 이 난은 관군과 프랑스군에 의하여 같은 해 6월에 진압되었다.(제주도지2권, 2006:544-552, 제주특별자치도)

dCollection @ skhu

1973) 추사김정희, 우암 송시열, 김정, 광해군 등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다. 유배인들은 학식과 벼슬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리들의 묵인과 토호세력들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유배인에 대한 존경심이 커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당부분의 부담을 떠안았다(강만생, 2009).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유배지에 와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았음은 자명한 일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여성이 담당할 수밖에는 없었다. 홍윤애는 제주여성과 유배인과의 연관성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인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역사 전시관에는 조선시대 역사인물로 '홍윤애[40]'가 포함되어 있다. 홍윤애는 제주 출생으로, 정조시해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왔던 조정철의 첩으로 딸을 낳고 함께 기거했다. 그 시기에 제주목사로 온 김시구는 조정철과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소론계의 인물로 조정철의 불법행위를 고하도록 홍윤애를 잡아다 문초하였다. 홍윤애는 장(杖) 70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숨을 거두었다. 출생한지 3개월도 안된 딸을 두고 "생명까지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연인을 위해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다"(강만생, 2009). 27년간의 유배에서 풀린 조정철은 조정으로 복귀하여 6년 만에 제주목사 겸 전라방어사로 부임하여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홍윤애의 무덤을 찾아 애도하는 시를 짓고 묘비명을 남겼다는, 비련의 주인공 홍윤애와 조정철의 사랑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펴낸 『제주여성사Ⅰ』에 수록되어 있다. 제주여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홍윤애를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불의에 저항한 제주여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40) 홍윤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전시관에 제주여성을 나타내는 역사속의 인물로, 김만덕(조선시대 거상), 장금· 귀덕(조선시대 의녀) 등과 함께 조형물로 전시되어 있다.

dCollection @ skhu

4. 소결

이 장에서는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구성 요소들을 첫째, 속담과 설화로 구전되는 '강인한 여성' 둘째, '제주해녀' 셋째, 제주여성천년사에 나타난 '제주여성'으로 보았다.

제주도 여성속담에는 유교제례문화에서 배제된 여성,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시키고 '여아 선호사상'이 드러난다고 전유되는 속담, 극심한 노동의 부담을 진 삶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구전되는 '아이업개' 설화 속에 나타난 '제주여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제주해녀'에 관한 문헌과 연구 자료를 통해 해녀들이 물질 작업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한 작업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라보는 외지인들의 시선과 반응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제주여성천년사' 작업에서 나타난 역사인물 가운데 여정(女丁)과 홍윤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서술한 '제주여성담론'의 구성 요소 세 가지는 모두 '제주여성천년사'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 관련 연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여성천년사' 작업은 10여년이 넘게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이루어낸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나 제주여성에 대한 일부 과장된 수사와 왜곡된 해석은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담론구성은 제주여성을 '동일한 형태로 방향지우는 보편적인 표상체계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박종성, 2006)고 보고, 이를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skhu

Ⅳ.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여성주의적 비판

1. ‘제주여성담론’의 가부장성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는 남성적 관점에서 합의된 사회이며 여성의 경험과 처지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여성의 문제를 공적영역에서 비가시화 되게 만들었다. 여성이 공적영역에서 배제된 채 사적영역에 머물러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 했는지에(허라금, 1995)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부장적 지배체제는 여성들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를 확대하는 것이다(러너, 2004). 제주여성 담론은 거다 러너의 『가부장제의 창조』 서문에 등장하는 여성종속의 역사의 내용과 흡사하다.

> “ ....여성들과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같은 중요성으로 연기하는 무대 위에 산다. 그 연극은 두 종류의 연기자 없이는 계속 될 수 없다. ....그러나 무대장치는 남성들에 의해 고안되고 색칠되고 규정된다. ....여성들은 어떤 때는 남성들을 무대에 올리고, 어떤 때는 빠진 남성연기자를 대신한다. 엄청난 투쟁 후에 여성은 평등한 역할배정 권리를 얻어내지만,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여성들은 ‘자격’ 요건 또한 남성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남성은 여성을 평가하는 심판이다.... ”

제주사회의 가부장성은 제주여성들을 속담과 신화 속에서 호명해내는 ‘제주여성천년사’와 이데올로기화된 ‘제주해녀’를 통해 무의식속에서 현재까지 전유되고 확산된다.

dCollection @ skhu

1) 속담과 설화속의 제주여성,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도 속담들은 외면적으로는 제주여성이 강인함과 근면성을 찬양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여성 노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도 여성속담의 '강인한 제주여성 이미지'속에는 숨겨진 또 다른 방식의 착취가 숨어 있다(김미진, 2008). 속담에서 여성 자신이 주체적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소로도 태어나지 못하니 여자로 태어난다"고 한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집안'의 경사일지는 모르나 여성 스스로는 '소'보다도 더 힘든 일을 감내해야하는 고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넹이광 버랭이 나당 버쳐사 여자로 난다" (지네와 벌레로 태어난 다음에야 여자로 태어난다) 라며, 지네나 벌레만도 못한 여자라고 자조하는 속담도 있다. 또한 속담들은 여성이 얼마나 모질게 노동을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남편 어신 살아도 장화어신 못산다"(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한 일가는 너끈히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속담도 전해져 온다. 남편이 없는 것은 살 수 있으나 장화(일) 없이는 못산다는 속담이 주는 의미를, 제주여성들은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속담은 제주여성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여성을 타자로써 도구화 시키는 표현이다. 제주여성들은 남성을 대신하여 일을 해야만 하고 가족을 부양할 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도 속담에서는 남성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언어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김미진, 2008). 제주도 속담에서 읽고 찾아내어야 하는 것은 딸을 선호하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여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주사회가 여성을 타자로써 도구화시키는 가부장문화를 읽어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제주도 속담은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주는 기능과 동시에 이에 순응하는 여성들의 무의식에 무비판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dCollection @ skhu

‘아이업개’ 설화는 제주지역을 지배했던 삼별초군과 여·몽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김통정의 아이를 임신한 ‘제주여성’이 삼별초군을 진압하는데 도움을 주긴 했으나 김통정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김일우(2009:235-265)는 아이업개 설화에 대하여 “제주여성들은 ‘적극적 사회참여 의식’을 지녀 외부 세력의 진입으로부터 제주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외부세력과의 융합’을 통해 제주문화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기도 했다”라고 쓰고 있다. 또한 강만생(2009:296)은 “한국의 중세 제주여성들은 세속적 권력이 쳐놓은 함정을 피하지 못했다. 어쩌면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피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제주여성들은 역사적 희생자였기에 가족들이 필요로 한다면 다른 지방 출신의 낯선 유배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했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한림화(2005)는 ‘지혜로운 제주여성’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적극적 사회참여 의식’(연합군을 도와 성문을 열게 한)을 지닌 ‘지혜로운 제주여성’(아이업개)이 ‘외부세력과의 융합(김통정의 아이를 임신한)’을 통해 ‘제주문화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가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별자아를 희생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김연숙, 2003)속에서 ‘몸’을 희생하는 여성들은 순교자이며, 애국자라는 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업개’ 설화에는 제주남성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역사의 혼란기에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남성들이 시선도 드러나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사회적 약자를 양산해 내고 여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배의 대상이 된다. 제주사회를 지배해온 지배계급인 삼별초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그 이유로 다른 지배계급인 여·몽연합군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제주여성을, 당시 제주지역사회가 ‘지혜로운 제주여성들’이라는 찬사를 보냈을 것이라고

dCollection @ skhu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한다. '아이업개' 설화의 해석에는, 여성의 '몸'이 도구화되고 조롱당하고, 또한 목숨까지 희생당해야 했던 수많은 제주의 '아이업개'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후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설화들은 여성의 몸을 댓가로 남성(지역)의 권위를 수호하고 식민화된 희생자라는 수사를 통해 민족주의 담론의 상징으로(최정무, 2001) 미화시키는 제주지역사회의 가부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전유되는 담론: 제주여성천년사연구

제주여성천년사연구는 역사 속에서 묻혀버릴 수 있는 제주여성을 찾아내는 의미있는 작업임은 분명하다. 연구자는 본문의 연구 과정에서도 이들이 발간한 연구 자료들이 1차 자료로써 유용하게 쓰였음을 밝힌다.

제주도에서 여성과 관련된 연구의 시작은 2001년 제주도지(濟州道誌)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여성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제주문화자료총서』가 그 시작이었다.

dCollection @ skhu

〈 표 9 〉 제주도 여성관련 연구자료

발행년도	제 목	발행처	주요내용
2001	제주문화자료총서	제주도	· 가족과 결혼생활 · 속담으로 만나는 제주 여성어 · 제주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 노래에 나타난 제주여성 · 제주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 문화영웅으로서의 여신
2004	제주여성전승문화	제주도	· 제주도의 세시풍속과 전승민요 · 통과의례속의 제주여성 풍속 전승양상 · 제주신화속의 여성신들, 그 특징과 의미 · 제주여성상 원형 왜곡과 재생 · 재일 동포 제주여인들의 삶 · 제주 해녀의 전승 언어
2001	제주여성사자료총서 I 권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 사진자료집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2001	2권 워크숍자료모음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2002	3권 신문기사자료집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2003	4권 사진자료집2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 제주여성 시대를 어떻게 만났을까
2004	5권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1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2005	6권 제주여성1호 찾기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2006	7권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난 살았주
2007	8권 제주여성사자료총서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 전통주거에서의 여성 공간 · 제주여성의 노동 공간 · 제주여성의 통과의례 공간 · 제주여성의 전통신앙 공간
2007	제주여성사료집 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국역이 이루어진 사서(史書) · 읍지, 문집류에서 제주여성의 삶과 당대 사회상을 고찰 할 수 있는 기록
2008	제주여성사료집 I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조선비망록 · 해녀항일관련 신문기사

dCollection @ skhu

			·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 · 이순옥 탄원서 · 일본 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 조선총독부관보 중 제주도 · 외국인이 기록한 제주도 기행
2009	제주여성사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여성사의 관점과 방향 · 제주여성의 역사적 지위 · 제주의 창조 여신들 · 성리학과 제주여성 · 제주해녀사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 고문서에 나타난 제주여성의 위치 · 분야별제주여성사 경제, 문화, 종교, 통과의례와 제주여성
2011	제주여성사Ⅱ -일제강점기	제주발전연구원	· 여성의 사회적지위 변화 · 근대민족교육과 여성 · 항일과 자각 · 출가해녀 · 노동과 시장 · 신앙 · 풍속의 변화

주: 제주도에서 제주여성천년사 작업을 위하여 발간한 자료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제주여성특별위원회'가 제주여성사 정립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2001년 『제주문화자료총서』에 제주여성관련 자료를 수록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8권의 제주여성관련 자료를 『제주여성총서』로 발간하였다. 그 후 '제주여성천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주여성사료집 Ⅰ·Ⅱ권을 발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연구원에서 제주여성사1권(2009)과 2권(2011)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 여성 관련 자료는 제주지역의 옛 풍속, 민요, 속담, 가족과 결혼생활 등 제주여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놓은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2007년에 발간된 『제주여성전승문화』에 이어 2009년 『제주여성사Ⅰ』에도 '여성신화'가 여성의 역사와 혼재된 채로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제주여

dCollection @ skhu

성신화'를 역사 속의 여성과 더불어 '제주해녀'와 동일한 인식체계 속에 자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신화 속에서 제주여성의 원형을 찾아내고(김정숙, 2000)그를 통하여 현실사회에서 받는 핍박과 억압을 견뎌내는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이수자, 2004) 역할을 하게 한다. '제주여성천년사'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가부장제가 만들어 낸 열녀나 효부를 찾아서 드러내면서 "...삶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유교적 삼강오륜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러한 자아정체성 개념이 그 위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서 제주여성의 주체적 삶은 강화되어 나타났을 것(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57-69)"이라며 로 조선시대의 열녀와 효부를 천년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주여성사자료총서 8권에는 제주여성의 노동 공간에 관한 글이 실려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2007:85-165) 70년대 이전의 제주여성의 노동 공간은 "전통사회가 유지되던 시대의 제주여성들은 한 시라도 일거리를 놓지 않고 생활하는 맹렬여성이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또한 "노동 현장을 통하여 조명해 보면, 누누이 강조해 온 것처럼, 전통사회가 지배적이었던 시대의 제주여성들은 가정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또는 가족들의 건강과 장래를 위하여, 온몸을 던져 일을 찾고 소화하는 여성상(女性像)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제주여성천년사 작업 속에서 찾아낸 역사속의 여성 가운데 화살받이 터에 여성을 세워 국방의 의무까지를 지게 한 '여정'이나 제주여성의 '몸'이 성적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이업개' 설화, 홍윤애, 열녀, '해녀'등에 관한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여성천년사는 여성신화와 역사 속의 여성, 제주해녀를 '제주여성담론' 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제주여성들에게 왜곡된 여성상을 심어주고 제주여성의 재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제주여성천년사' 발간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일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의 해석에서는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여

dCollection @ skhu

성천년사에 수록된 모든 사례나 인물들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구성요소라고 본 '홍윤애', '여정', '열녀'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적 비판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유배온 사대부와 제주여성 홍윤애

조선시대에 제주도로 귀양이나 관직을 임명받은 사람들은 일가를 데려올 수가 없었다고 한다. 유배오거나 관직을 임명받은 사대부를 시중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여성의 몫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유배 생활에 제주여성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만 도움을 주지는 않았으리라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홍윤애는 '연인'을 위하여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 조정철의 딸까지 낳은 홍윤애가 연인에게 피해가 될 내용을 발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홍윤애를 제주여성천년사에서는 단순한 사랑이야기에 덧붙여 '목숨을 걸고 불의에 항거한' 여성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만약에 조정철이 훗날 유배에서 풀려 제주로 내려와 홍윤애를 찾지 않았더라면, '제주여성 홍윤애'는 재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인 '남성'이 호명해 줄 때에만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가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일 뿐이다. 조선중기 이후 빈번하게 유배의 섬으로 각인된 제주에서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함께 '몸'을 제공해야 했던 비극의 역사를 미화시키며 드러내는 일은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본다.

(2) 화살받이로 동원된 여정(女丁)

dCollection @ skhu

‘제주여성천년사’를 통해 부활한 ‘여정’은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미화되면서 재현되고 있다. 제주 역사속의 ‘여정’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남성들과 ‘같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한 여성들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상헌의 기록은 당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았으며, 여정들은 주로 적의 공격 목표가 되는 수성군인 ‘화살받이’로 동원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제주섬의 지리적인 여건 상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제주섬을 지키기 위한 성(成)을 쌓았을 것이다. 그 성에서 보초를 서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정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삶의 고단함이 너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여성천년사’에서는 제주여성들이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조정에 진상할 진상품을 캐고, 가족을 돌보는 것과 더불어 성곽에서 화살받이로 동원된 상황을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환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일우(2009)가 주장하는 대로 “제주사회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는”, “남성과 함께 제주사회의 운명의 동반자로서 주체적으로 여성 대중의 사회참여를 주도하고 실천한” 제주여성들은, 결국 남성을 대신하여 먼저 죽을 수 있는 ‘화살받이’로 희생을 강요당한 것일 뿐이며, 이는 제주여성을 도구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직 교사인 53세의 제주여성은 속담과 문헌에 나타난 제주여성에 대한 해석도 남성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여자들을 강인하다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저는 그것도 다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주여성들이 다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육지여성들은 아주 여성적 예를 들면, 연약함이나 의존적이거나, 섬세한 면이 많이 드러난다고는 생각해요(웃음). 그러나 제주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고, 이게 정상적인 건지, 성차별인지, 평등인지, 권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여자들이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사례 10,)

dCollection @ skhu

1901년 이재수의 난[41] 때 민란을 저지하러 온 미국인 샌즈(W.F.Sand)[42]는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여인의 나라인 아마존사회이다. 여인들은 항상 그들의 권력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있을 뿐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 불과하다. 제주여성들은 어떤 권력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권력에 굴종하고 핍박을 받은 역사가 있는 것이다. 남성에게 굴종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일어설 때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기개를 품고 있는 역사속의 제주여성들은 일부 학자들만이 전유하고 해석하는 '담론'으로서의 제주여성일 뿐이다.

(3) 미화된 정절이데올로기: 열녀

제주여성천년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문순덕(2007)은 제주열녀들의 삶을 기록한 책에서 조선시대에는 "남편사후에 '순절해도 되지만' 노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순절을 포기하고 수절한 여성들이 많다"고 하였다.

> "여성문화란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이며, 여성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여성의 삶을 지배하는 유형, 무형의 요소들을 말한다. 이를 역동적으로 해석하고 수동적 열녀가 아닌 능동적 열녀로 탈바꿈 할 수도 있다. ...열녀는 외면하고 싶은 여성어가 아니라 보듬고, 포용하고 다양하게 접근해야할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과거의 열녀가 앞으로는 자의적, 적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된다면 제주의 여성은 물론 한국의 여성들이 세상과 치열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41) 봉세관이 무리한 과징과 왜래 종교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 1901년 5월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민란으로 4,500여명의 천주교인들이 제주도민에 의해 희생당했고 이 난은 관군과 프랑스군에 의하여 같은 해 6월에 진압되었다.(제주도지2권 , 2006, 544-552, 제주특별자치도)

42) 고종황제 자문관(『조선비망록』, 집문당, 1999; 제주여성사 I , 2009:746,재인용)

dCollection @ skhu

이어서 그는 남성의 시각으로 정리된 역사에서 벗어나 새롭게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서, 여성의 잠재된 위력을 찾아보고 열녀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을 통해서 이를 '여성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순덕(2006)은 제주의 여성문화는 "제주의 역사와 사회제도가 반영된 것을 가리키며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창조해 낸 문화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제주여성의 삶의 모습과 사회적 지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해 발간된 자료는 제주도의 개별성과 한국의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작업(문순덕, 같은글)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제주여성천년사 체계적 정립 사업'은 가부장적 굴레 속에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을 찾아서, 과거의 역사학이 여성의 경험과 행위를 외면하고 역사서술에서 배제시키는 인습적 사고에 도전하는 작업이라고 주장[43] 한다. 과거 역사에서 이상적인 여인상인 현모양처나, 요조숙녀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만들고 자신의 문화적 주체성을 규정하는데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 제주여성사의 시작이자 끝이다"(같은글)고 하였다.

사례 4 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인식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준다.

> "독립적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었으면 좋겠어요....문화적인 거라든가 어떤 모든 부분은 남자들한테 다 종속되게....많은 사람들이 제주여성 강인하다, 근면하다, 독립적이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우리를 비쳐져 왔고,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고 왔다라고 하면, 육지사람 보다 상당히 어느 부분 독립적인 부분이 있는데, 뭔가 잘못돼 있는 거 같은. '전족'같은, '부루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사례, 4)

43)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천년사 체계적 정립 사업, 2003

dCollection @ skhu

이렇듯 천년사 작업을 통해 속담과 설화속의 여성이나 문헌속의 제주여성을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역사를 보는 관점과 다른 맥락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시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7:52)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제를 유지 전승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 ‘딸’을 낳으면 좋아한다”는 속담을 ‘여아선호사상’이라고 해석하고, 제주여성들을 여정으로, 외부세력의 제물로, 유배 온 사대부의 처첩으로, “순절하지 않고” “수절하는” 열녀로 드러내는 것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동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여성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여성의 문화가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형성되고, 어떻게 여성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여성의 문화 그 자체와 전체 사회와의 관련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인지(정현백2001)에 대한 답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10여년간의 제주여성 연구에 있어서 4·3사건에 대한 기록은 『구술자료집』 Ⅰ·Ⅱ권에서 부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이다. 제주에서 4·3사건은 현재까지도 제주도민의 의식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되는 트라우마가 있다. 4·3사건이 발발한지 65년이 흘렀고, 그 현장에서 참혹한 상황을 기억해낼 수 있는 여성들은 이미 80세가 넘었다. 물론 현재의 한국사회가 좌·우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실재했던 여성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외면하는 제주여성사 정립 사업은 그 의미와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여성천년사’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실에서 여성의 배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제주여성들이 신화속의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서 이데올로기 효과를 만들어 냈다[44]. 결국 ‘제주여성천년사’ 발간은 제주역사 속에서 ‘강인한 제주여

44) 존 스토리는 이데올로기를 첫째, 특정집단에 의해 부각되는 조직적인 사고체계이며 둘째,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눈가림이나 왜곡, 은폐를 의미하며 셋째, 항상 세상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넷째,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일상생활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 부분적이고 특이한 현상을 보편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문화적인 현

dCollection @ skhu

성'을 '찾아내려는' 의도된 작업이었고, 가부장문화 안에서 역사와 전통의 재현을 통한 제주지역사회의 공동체 이미지를 전유하는 작업이었다.

2.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의 오리엔탈리즘

1) 외부의 시선: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한국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조혜정(1988)은 모성의 원형으로 제주의 해녀를 '발견'했다. 그는 해녀사회의 '여성 중심적 경제구조'를 '신기한' 것으로 보면서 이런 특이한 분업이 남녀의 기질 형성과 권력 관계 형성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중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제주도는 외적 권력에서 부단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역사를 보임과 동시에 외부 권력에 아부하는 역사의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308). 특히 육지에의 정치·문화적 종속과 지배층과 일반 농민 간의 이분화, 지배엘리트의 육지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적 경향은 제주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45].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주장하는 '지배엘리트의 육지문화에 대한 사대주의적 경향'이, 제주 지식인들로 하여금 조혜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녀 사회의 여성 중심적 경제구조는 여성 우위의 사회이고 (314-338), "여성의 저력을 활용하지 않고 제주 문화의 재활력화를 시도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378)"이라는 논리를 수용하게 된 근거를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

상을 본질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존 스토리, 1994, 박모,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45) 조혜정은 1988년에 논문 "발전과 저발전:제주해녀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에서 제주도내 한 해안마을을 민족지적으로 연구하면서 1976년과 그 10년 후 2차 조사연구를 통하여 가부장제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의 제주도의 토착문화를 해녀사회를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dCollection @ skhu

는 바가 크다.

그는 제주사회의 '여성적 가치관'이 '남성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없었음을 생활 속에서 느끼며 자란 제주여성으로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자는 조혜정의 연구를 학문적·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론할 수 없는 현실적인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여성으로서 그가 진행한 '용마을'에서의 민족지적 연구결과가 무척이나 생소하고 불편했음을 말하려고 한다. 연구자가 50여년을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만났던 해녀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딸들에게 대물림시키고 싶은 '자랑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당장 '돈'이 되는 물질을 통해서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또한 김경희(2007)는 제주지역 여성의 이미지를 연구한 글에서 제주여성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보다 여성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이며 이는 지리 문화적인 특성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것으로써 여신 중심의 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제주여성의 자랑스런' 모습을 부각시키고 되새겨 보는 것은 제주도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제주여성은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남성 의존적 삶의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어서 그는 제주도 여성의 지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자생적인 한국적 페미니즘의 원형", "여성 지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대를 표명한다. 제주여성이 경제생활에서, 일상에서, 신화 속에서도 뚜렷이 한국적 페미니즘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주도의 제례의식과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중심의 독점 현상은 '강인한 제주여성'과는 무관하게 견고하다.

dCollection @ skhu

차배옥덕(2004)은 제주도의 여성신화를 해석하면서 제주여성만이 지닌 여성공동의 보편성과 차별성이 있으며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남아야하는 여성들의 몸부림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설문대할망 신화를 분석하면서 수많은 제주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자신과 삶의 주인공으로서 활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신화를 살펴보면 "다른 곳의 여성들보다 생명력의 원천이 심오하고, 직관력이 세고, 그 힘은 후에 제주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녀들은 여신이며 무당이며 어머니이며 일꾼이며 해양과 운명을 개척하는 투사이다"라고 제주여성을 예찬하고 있다.
이 외에도 " 제주의 비바리는 근로의 상징"(정한숙, 1962,〈제주도지4권〉), "아름다운 건강미의 제주해녀, 제주여성이 가지는 특징은 근면성, 생활력, 진취성, 건강미이며 제주여성은 사치를 거부하고 저축하는 습성을 가졌다. 이런 점은 전여성이 본받아야(박진학, 1969,〈제주도지40권〉)" 등이 있다. 이들의 표현에서 '제주 여성'을 '한국의 여성'으로 바꾸어 보아도 문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생활력', '근면함', '강인함', '저축하는 습관' 등의 언설은 '제주여성만'을 대표하는 수사가 아닌 것이다. 이렇듯 제주여성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현실 속의 여성들의 삶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다. '강인한 제주여성'은 "모권사회이며, 진정한 아마존 공동체"로 은유되는 '담론'임과 동시에 '이국적인 낭만'과 '신비한 제주여성'으로 요약되는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의 작동이며 '제주여성담론'의 배태(胚胎)라고 본다.

2) 해체되어야 하는 해녀신화

(1) 이데올로기화된 '제주해녀담론'

이 장에서는 '제주여성담론'이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제주해

dCollection @ skhu

녀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제주여성을 타자화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해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주여성과 해녀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문의 2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제주해녀의 노동강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험난한 노동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해녀들의 공동체 의식과 노동의 강도, 경제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연구자는 제주해녀의 '노동'을 폄훼하거나 저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제주해녀는 전체 제주여성을 대표할 수 없으며, '해녀'를 제주여성들이 수행해온 여러 직업군들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녀들의 노동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1970년에도 해녀인구는(〈표 5〉 참조) 15세 이상 제주여성 인구의 12.6%였고 2010년 현재에는 2.3%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해녀가 제주여성을 상징한다는 표현은 '노동자'로서의 해녀가 아니라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제주해녀'를 일컫는다. 제주해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유홍준의 책 『나의문화유산답사기: 돌하르방 어디감수광』(2012:137-166)에서 제주학자의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 "해녀는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의 정신이고, 제주의 표상입니다 해녀가 없는 제주는 상상 할 수가 없죠... 예로부터 제주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밭일 들일도 하고 바다에서 물질도 하며 살았어요. 제주에선 여자애들이 7~8세 때가 되면 갯가 헤엄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요. 그때부터는 물속 바위틈에 숨긴 물건을 찾아내는 그런 잠수놀이를 합니다. 12~3세가 되면 ... 깊은 데로 파도를 타고 나가고 들어오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글들은 '모든 제주여성은 해녀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제주해녀는 바다와 '인접한 마을'의 여성들이 가족을

dCollection @ skhu

위하여 험난한 일을 하는 직업의 하나일 뿐이다. 정광중(2007: 146)은 『제주여성사 자료총서Ⅷ』에서 중산간 마을의 여성들은 잠수일을 할 수 없었다면서 잠수일을 통한 금전적·물질적 이득은 바다와 가까운 마을의 여성들만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자도 제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30여년을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에서 만난 제주여성들은 제주해녀와 상관없는 '제주여성들'이었다. 연구자의 참여관찰에서 만났던 강○○할머니(76세)에 따르면 50여 년 전에는 중산간 마을[46]에 사는 처녀들은 물질이 워낙 '험한 일'이라는 인식과 물질을 하기 싫고,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해변 마을로 시집가는 것을 꺼렸다고 하였다. 당시 신부감을 중매 서려고 해변 마을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마을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박○○할머니(88세)는 해녀들이 수입은 자기들의 몇 배였지만 물질하는 것을 보면 "부럽지는 않더라"라는 표현과, 이 말을 듣는 주위의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70, 80대의 제주여성들이 물질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여성들에게 '해녀'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노동자'였다.

(2) 이주노동에서 배제된 '제주해녀'의 바깥물질

제주해녀들의 일본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주 형태가 통계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주로 객주에 의한 모집방식이나 친·인척에 의한 일본 방문이 대부분이었다. 제주해녀들이 일본으로 나가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1천 오백명 내지 일천 6백명의 제주도 해녀들이

46) 제주도의 한라산과 해변 마을의 중간 쯤 되는 곳을 일컫는 말로써 통상 해발 100미터 이상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dCollection @ skhu

일본 곳곳을 드나들었다. 1937년의『제주도세요람』에는 일본으로 나갔던 제주해녀의 수는 1천6백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김영돈(2004)의 글에 따르면『바다를 건넌 조선인 해녀』(김영·양징자, 1988)에서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고 살고 있는 제주출신 해녀들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바깥물질'이었던 단기 노동 이주로 일본에 그대로 이주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기록이다. 제주해녀들의 일본 물질은 수입이 꽤 넉넉하여 국내에서보다 돈벌이가 괜찮아서 밭을 사고, 결혼자금 마련과 가족학비 등으로 쓰여 졌다.

> "17살 때 어머니가 울릉도로 물질하러 가는데, 나보고는 집에서 아버지와 오빠들을 돌보라는 거야. 나는 싫다고 울면서 어머니를 쫓아갔지. 거기서 2년 정도 물질해서 돈을 벌어와 집안 빚을 다 물고도 돈이 남아 조그만 밭을 샀지."(사례7)

현재 72세인 사례7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연구자가 당시 물질을 왜 했느냐는 물음에는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또 다른 할머니도(68세) 처녀 때 울진에 가서 3개월 일을 하고 돌아와 동네에서 좋다고 소문난 밭을 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출향 물질은 그 수는 줄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생명을 건 물질노동의 대가로 가족을 위해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은 아시아 이주여성들이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허오영숙, 2010)과 유사하다. 제주해녀들은 이미 1920년대부터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해외 '바깥물질'을 수행했음에도 제주해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주노동'이라는 언설속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여성들을 노동자로 호명하고 활용하며 가부장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이주여성들과 제주해녀의 '바깥물질'이 '여성이주노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다.

디아스포라는 이민이나 국제적 인구이동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dCollection @ skhu

강제이주나 종족 이산의 경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디아스포라인 이주노동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의 이질성, 혼종성 그리고 위험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담론화 되고 있다(김원, 2011). 이러한 담론들은 이주여성들을 주변화 시키고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하위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제주해녀의 '바깥물질'이 '이주노동'이었다고 평가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제주해녀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제주여성을 상징하는 기표로서 '극단적인 형태'(최병길외. 1998)로 변화해 오면서 제주해녀의 이주노동도 '제주여성신화' 담론에 가려져 그 행위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3) '제주해녀담론'의 허구성

안미정(1997)에 따르면 해녀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에 사학자 민경임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로서 해녀에 주목하였고,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해녀를 독특한 '어로 노동자'로 바라보는 제주지역 연구자들에 의해서 해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학자로서 제주도에 관한 최초의 지리학적 연구를 한 우낙기(1965)와 강대원(1973)은 '제주해녀'를 주제로 삼아 최초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였다. 안미정(같은글)은 제주해녀 연구에서 "이미지가 제주해녀로부터 나와 재구성된 것이므로,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에 대한 정체성의 논의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제주해녀는 '탐라제주의 근로 여신'으로서(우낙기, 1965), '잠수들의 눈물겨운 근로정신'(강대원, 1973), '존경받는 여인상'(조혜정, 1988)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영돈(1997)은 "해녀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dCollection @ skhu

생명을 걸고 사는 여인들", "제주도와 제주여인을 통째로 표상하는 제주해녀(1993)"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제주해녀들의 자맥질은 한국여성의 대표적인 어로활동"(안미정, 2008), "연약한 여인이 거친 바다에서 나잠업으로 물질을 하는 자생력이 있고 결집력이 있는 집단, 해녀수의 감소로 해녀에 대한 연구,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김영돈, 1986), "아름다운 건강미 제주해녀, 근면성, 생활력, 전 여성이 본받아야"(박진학, 1969) 등이 있다. 이런 해석들은 제주역사의 흐름과 함께 수탈당하고, 스스로도 천한 노동이라고(안미정, 1998; 유철인, 1998) 자조하는 해녀들을 1960년대 이후 지역엘리트나 지방정부에 의하여 자립정신이(강병찬, 1977 재인용) 강한 '수출산업의 역군' 등으로 묘사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해녀에 관한 담론은 해녀의 입장에서가 아닌 타자의 눈으로 해녀를 대상화시키고 '담론'으로 구성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관광 산업의 확장을 시작하려는 시기에는 '노동'으로써의 해녀가 아닌 '관광 상품의 상징'으로써 제주 해녀를 표현하는 글도 눈에 띈다. 한치문(1973)은 "제주 해녀들도 노동의 조건에만 관심 가질 일"이 아니라 "제주도의 체면에 관계되지 않도록 높은 교양"도 쌓으라고 적고 있다. 또한 제주도내 일부 해안 관광지에는 '미스코리아'의 몸매를 가진 해녀상(像)을 세워 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커다란 수족관에서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는 '세계해녀문화축제'의 준비단계로 서귀포에서 '제주해녀요리'와 '해녀춤'을 선보인데 이어 2011년 '제주해녀축제'도 같은 형태로 치러지고 있다. 이는 제주해녀의 고된 물질을 경제력을 창출하는 노동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광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주시의 한 어촌계에서는 사라져가는 해녀문화를 보전하고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제주해녀학교'[47]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해녀학교'에서 물질을 익

dCollection @ skhu

히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해녀를 직업으로 삼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주도내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100개의 어촌계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어촌계는 새로운 해녀들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적지 않은 '가입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녀학교'의 운영은 직업으로써의 해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체험하는 기회를 줄 뿐이다[48]. 또한 제주바다는 각 마을이 관리하고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사라져가는 제주해녀를 통해 '강인한 제주여성'을 드러내는 것은 상징에 불과하다.

해녀의 고령화와 어획량 감소는 해녀 수를 급격하게 줄어들게 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수산자원의 고갈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제주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상징화할 대상'이 사라지고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 현재의 주류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주해녀를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논의가 과연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문에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주류담론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지방정부나 일부 연구자들이 해녀들을 '강인한 제주여성'이라는 '신화' 로 호명하고, 제주해녀들이 그 부름에 자발적으로 응할 때 그들은 이미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종속된(김원, 2011) 상태가 된다. 결론적으로 해녀에 대한

47)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어촌계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한수풀해녀학교'는 2012년 5기까지 총 205명(도민 155, 도외 39, 외국인 11)이 졸업하였다. 이는 제주해녀를 보호하고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48) 어촌계와 관련된 설명은 연구자가 2013년 6월 11일에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양수산과로 전화문의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dCollection @ skhu

과장된 수사는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하는 가부장제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제주해녀 '신화'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dCollection @ skhu

Ⅴ. 결론

1970년대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는 제주여성들을 '강인한 제주여성'으로 호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강준만이 말하는 '주목투쟁'의 하나로써 내 세울 것이 없는 변방의 제주섬에서 제주여성을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태혜숙(2001:52-53)에 따르면 벨 훅스는 흑인 문화민족주의에 전제되어 있는 흑인 남성 주체의 중심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설명하면서, 흑인 중에서도 흑인여성은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은 섹슈얼리티의 대상이거나 노새처럼 일하는 존재이지, 인격이나 여성성을 갖는 인간주체로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훅스는 여가장(matriarch)을 둘러싼 흑인여성 이미지는, 흑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부정하고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백인남성, 백인여성, 흑인남성 중심사회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흑인 여성을 '여가장'으로 신화하는 이미지는 인종적, 성적으로 흑인여성이 받아온 이중적 차별을 은폐할 뿐이라는 것이다. 훅스의 이론을 제주지역 여성담론에 적용해 보면 '강인한 제주여성담론'은 지역의 가부장 문화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면적으로는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근면성을 찬양하면서도 여성의 노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장치로 해석되는 속담과 설화들은 제주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주는 기능과 동시에 이에 순응하는 여성들의 무의식에 무비판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밝혔다. 제주도 속담에서 '딸'을 선호하고, 진취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여성을 타자로써 도구화시키는 가부장문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이업개' 설화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적극적 사회참여의식을 가진 지혜로운 제주여성이 외부세력과의 융합을 통해 제주문화의 폭을 넓히는데 기

dCollection @ skhu

여했다는 과도한 수사 속에는 여성의 몸을 댓가로 지역의 권위를 수호하고 민족주의 담론의 상징으로 미화시키는 지역사회의 가부장성이 숨어있다. 제주여성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속담이나 설화, 또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제주여성들을 도구화하고 대상화 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역사속에서 묻혀버릴 수 있는 제주여성을 찾아내는 제주여성 천년사 편찬 작업에는 제주여성의 현실과 신화가 혼재된 채로 재현되고 있다. 유배된 사대부와 제주여성 홍윤애, 미화된 정절 이데올로기 열녀, 화살받이로 동원된 여정 등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가부장제를 유지 전승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여성 문화 자체와 전체 사회와의 연관성을 잇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제주여성인구가 수행하는 노동자의 한 부분이었던 '해녀'를 제주여성 전체와 동일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해녀가 아닌 '제주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해녀들은 고령화되고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해녀 수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험난한 노동을 하는 해녀를 제주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정하고 장려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제주여성'의 상징으로 상품화시키고 신화화시킨다. 따라서 '노동'은 사라지고 '신화'만 남은 제주해녀에 대한 신화를 해체시켜 현실적인 여성 노동의 한 분야로 되어야하고 인정받고 전승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속의 제주여성은 국방의 의무와 함께 성의 축조에 제물로 바쳐지고, 삼벌초군을 토벌하는데 지혜를 빌려주었지만 죽임을 당하고, 진상품을 바치기 위해 험한 물질을 하는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가 외부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에 제주여성이 당한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여성의 입장에서 제대로 드러내어 평가한 흔적이 없다. 그것은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요함과 동시에, 제주지역의 우월성과 순수성을 제주여성과

dCollection @ skhu

동일시하면서 이를 보존하려는 남성 집단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여성담론'이 형성되기까지 고난을 견디며 살아온 여성의 삶과, 제주해녀, 설화와 속담으로 이미지화되는 여성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제주여성담론'이 만들어낸 상징성은 실질적으로 제주여성의 현실과 연관성이 없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여민회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제주여성영화제'와 '생생수첩: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사업은 제주지역의 여성운동단체가 제주지역의 가부장적 제주사회에 균열을 내는 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유의미한 일이다. 여성영화제는 <여성이 만든 세계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작해 12년을 이어오면서(안혜경, 2012), "독립적이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그늘에 비춰 든 햇살"이고, "촘촘한 혈연 및 학연 지연으로 얽힌 사회를 흔드는 지진"이었다. '생생수첩'은 제주여성천년사작업이 한창이던 2007년에 제주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을 기록하고 이를 정리해서 제주사회에 숨겨진 차별을 드러내려 했던 사업이다. 제주여성을 대표하면서 상징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공유하면서 치유되는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혜정(1986:196)에 따르면, 가부장제 극복의 주요 관건은 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집단의 것에 묻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창조해 가는 것이며, 그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동시에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담론의 주요 배경의 하나로 전유되는 '신화'를 간단히 언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당사자인 해녀 '자신들'은 해녀를 상징화시키고 있는 외부의 시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연구자 역시 제주해녀를 대상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또한 '제주여성

dCollection @ skhu

천년사' 작업의 결과로 발간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시간적 한계와 함께 개인적인 역량이 미흡함도 연구에 드러나 있음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제주사회에 주류담론으로 유포되고 있는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을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시도한 글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본 연구가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주여성들이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담론을 활성화시켜 제주여성을 재구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불어 제주여성들이 지배 '담론 재현'의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사회를 움직여가는 정치·사회적 주체로서 확고한 위치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dCollection @ skhu

참고문헌

1차자료

제주도지 4권, 1962

제주도지 40호, 1969

제주도지 제5권, 제3권, 2003,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2006, 제주도

제주여성가족통계, 2012, 제주도

제주실록, 1997, 제주도공보관실, 나우인쇄출판사

제주여성문화, 2001, 제주도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2001, 워크숍자료모음

제주여성전승문화, 2004, 제주도

제주여성천년사 체계적 정립사업자료집, 2003,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2007,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사료집Ⅰ, 2007, 제주특별자치도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료집Ⅱ, 2008, 제주특별자치도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Ⅰ, 2010, 제주특별자치도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Ⅱ, 2011, 제주발전연구원

생생수첩: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드러내기, 2007, (사)제주여민회

제주여민회 창립 15주년 기념 특집호 제주여성「틈」, 2002, (사)제주여민회

4·3 장정, 1989, 제주4·3연구소

이제야 말햄수다, 1989, 제주4·3연구소, 한울

“경술국치 100년, 근대 제주해녀를 말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자료집, 2010.

dCollection @ skhu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2005,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 2010, 제주발전연구원

2차자료

강남식, 2004, “한국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기억과 전망』 여름
강만생, 2009, “유배의 땅과 제주여성” , 『제주여성사Ⅰ』,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연구원
강병찬, 1977, “여성활동에 관한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발행정과 석사논문
강인순, 2005, “마산, 창원지역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학』 제23권4호
강준만, 2008, 『지방은 식민지다』, 서울, 개마고원
권귀숙, 1996,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조혜정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김경희, 2007, “제주지역 여성 이미지 탐독;대안적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모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미진, 2008, “제주도 여성 속담의 이중성”, 『영주어문』 제 16집
김순이, 2001, “문화영웅으로서의 여신들”,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김연숙, 2003,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연구』 제3호
김영남, 2012, “풀뿌리여성운동을 통해 본 여성주의 시민성의 확장에 관한 연구”-대전여민회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김영돈, 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_____ 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대영인쇄사

dCollection @ skhu

_____ 1997, “비범한 제주해녀의 저력”, 제주도지 통권 101호
김원 ,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연구
김일우, 2009, “ 전근대제주진입의 외부세력과 제주여성”, 『제주여성사Ⅰ』, 제주특별자치도발전연구원
김은실, 1994, “민족담론과 여성”-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10
김정숙, 2001, “제주도 신화속의 여성 원형”,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김효선, 2007, “제주사회의 가부장제 드러내기”, 『생생수첩』 제주여민회
김혜숙, 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여성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2』서울, 한울아카데미
문무병, 1989, “제주도의 문화운동-진단과 제언” , 〈제주사회연구〉 창간호, 제주사회연구소
문순덕, 2001, “속담으로 만나는 제주 여성어, 『제주문화연구』, 제주도
2007, “역사속에 각인된 제주여성-제주 열녀들의 삶”, 도서출판 각
박용옥, 1971, “1896~1910 부녀단체의 연구”, 『한국사연구』제6호, 한국사연구회
박종성, 2006,『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주)살림출판사
서명선, “유신체제하의 국가와 여성단체-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여성학논집제6집〉
송성대, 1997,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파피루스
신행철, 1995, 『제주사회론Ⅰ』, 한울아카데미
안미정, 1998 “제주 해녀 이미지와 정체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dCollection @ skhu

_____ 2008,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출판부
양영자, 2004, “세시풍속과 전승민요”, 『제주여성전승문화』, 제주도
오장미경, 2007 “개발국가 시기, 새마을운동 부녀 지도자의 정체성의 정치 -부녀지도자의 성공사례, 수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유철인, 1998,“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제주사회론2』서울, 한울아카데미
유홍준, 2012,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 창비
이선미, 2005, “한국 시민사회의 젠더 차원:실증적 연구, 〈한국여성학〉 제 12권(1)
이수자, 2004, “제주 신화속의 여성신들 그 특징과 의미”, 『제주여성전승문화』, 제주도
이승희, 1994, 『한국현대여성운동사』, 서울, 백산서당
이옥순, 2002.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푸른역사
이정숙, 2004,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정주, 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이창기, 1992,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도전, 적응, 초월의 메커니즘”『제주도 연구』, 제주도연구회, (주)나라출판
이효재, 1996, 『한국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7)
장혜련, 2009, “출륙금지와 제주여성”, 『제주여성사Ⅰ』,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연구원
_____ 2011, “제주해녀-바다를 횡단하는 트랜스네셔널 유목주체”. 〈비교한국학〉 19(1)
정광중, 2007, “제주여성의 노동공간”,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dCollection @ skhu

제주여성특별위원회
조성윤, 1998,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시 탑동 개발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2』 서울, 한울아카데미
조옥라, 1986,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2집〉
조혜정, 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 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2집〉
_____ 1988,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좌혜경, 2012, “제주전통문화에 드러난 탈이데올로기적 ‘여성성’ ”, 제주발전연구원
차배옥덕, 2004, “제주 여성상 원형 왜곡과 재생”-길들이기와 도전하기, 『제주여성전승문화』, 제주도
차옥승, 2007,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 〈종교연구〉 제4집
최병길·권귀숙·강상덕외, 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제주도연구〉 제15집
최정무,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차)별 구조”, 일레인 H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옮김,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서울, 삼인
태혜숙, 2001,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_____ 2008, 『대항지구화와 ‘아시아’ 여성주의』, 트리컨티넨탈
한림화, 2001, “담론으로 본 제주도 가족 내 여성역사와 가족이데올로기”, 지역여성학술대회 자료집
_____ 2009, “제주의 관방시설과 제주여성”, 『제주여성사Ⅰ』, 제주특별자치도발전연구원
한삼인, 2011, “근대법(민법)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주여성사Ⅱ』 제주발전연구원
한치문, 1973, 『탐라실록』, 한진문화사

dCollection @ skhu

허라금, 1995, “서구 정치사상에서의 공적개념과 가부장적 성차별성”, 〈여성학논집14〉

허오영숙, 2011, “원가족 지원을 둘러싼 결혼이주여성의 협상과 갈등”,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허정옥, 2002,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 제주도연구 22집

허 춘, 1995, “설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고(女性考)”, 국문학보 제13집, 제주대학교국문과

현용준,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서울

거다러너, 2004, 강세영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서울

로지 브라이도티, 2004, 박미선역, 『유목적 주체』, 여이연, 서울

존 스토리, 1994, 박 모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1998〔2005〕,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서울

Ozkirimli Umut., 2000,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St. Martin's Press

dCollection @ skhu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s such as ‘How much does the discourse on ‘strong Jeju women’ reflect the reality of them?’ and ‘Do Jeju women have the equal status as members of society like they are cited as strong women?’

The remarks on Jeju women are based on tales and myths. At the same time, the female divers in Jeju and women in history who have lived through harsh conditions of times and regions symbolize the lives of Jeju women. The point in the discourse on strong Jeju women is that they have overcome their difficult lives with their strength. The exclusive possession and diffusion of ‘the discourse on strong Jeju women’ is interconnected with two things; the views of Jeju from the people on land as strangers and the attempts to suggest ideological products or new symbols from the intentions of political powers in Jeju. This kind of the discourse on strong Jeju women plays the role to spread and strengthen patriarchal ideology.

This study is meaningful with two reasons; firstly it proves that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symbolized images of Jeju women created from ‘the discourse on Jeju women’ and the reality of them, and secondly it tries to criticize ‘the discourse on strong Jeju women’ spread as the main discourse in Jeju with the feministic point of view. I hope this study serves as a momentum to find the identity of Jeju women and suggest that the power be gathered to restructure them through the new type of community discourse vitalized by Jeju women. Furthermore, I hope Jeju women find their position as political and social agents who transform Jeju society effectively, not as agents who reenact the dominant discourse.

Key words: strong Jeju women, discourse, views from strangers, patriarchal dominant ideology, female diver in Jeju, proverb, tale, Jeju women in history, the reality of Jeju women

dCollection @ skhu